

제8회 금산 동학혁명 및 제6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발표자: 이동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장)

성주현(부천대학교 교수)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일시 : 2010년 11월 30일(화) 오전10시
- 장소 : 금산다락원 소강당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순 서

- ◆ 발간사(금산동학농민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동복) 3
- ◆ 축 사(금산군수) 4
- ◆ 축 사(금산군의회 의장) 5
- ◆ 제8회 금산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
 - <주제> 동학농민혁명사의오류와 전봉준장군 자력으로
동학농민혁명 봉기를 못했다.
 - 이동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 원장) 6
 - <주제> 서장옥과 금산지역 동학군의 활동
 - 성주현(부천대학교 교수) 17
 - <주제> 일제강점기 금산의 3·1독립만세 운동
 -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35
 - <주제> 조선후기 금산 유학의 흐름과 사족활동
 -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52

발 간 사



(사)금산동학농민혁명회가 발족 된지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금년에 제8회 동학농민혁명 및 제6회 “의로움의”의 금산정신을 구현한 학술 발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시는 군민 여러분! 저희 동학농민혁명사가 1단계 “최초의 봉기지, 최후의 항전지”가 우리 금산이라는 자부심에서 출발, 2단계는 금산동학농민혁명군은 군현경계를 넘어 생명을 건 “공동봉기”를 했다는 새로운 중대한 역사적 사실이 밝혀졌고, 3단계는 금산동학농민혁명사는 “1894년 3월의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금산지역이 중심지였고, 황토현전투 전주성 함락이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힘 이었다”는 중대한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4단계는 한국동학농민혁명사가 “다시 바로잡아야하는 공과(功過)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8회 금산동학농민혁명 및 제6회 “의로움”의 금산정신구현을 위한 학술발표회외, 그간 중·고·교 학생 백일장도 군내에서 제6회 3도 1광역시 중·고·교 학생 백일장대회로 확장시켜 시행하였고, 제2회 중·고·교생 역사탐방을 실시하여 우리의 역사를 넓혀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많은 가르침과, 격려와, 지도를, 관심을 주시고 가지시어 금산인의 자부심 긍지로 승화되게 하는 노력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며, 학술발표회를 안내 드립니다. 참여하시어 격려 해주세요.

가정에 행운과 가족들이 건강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말씀 올립니다.

2010년 11월 30일

(사)금산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동 복

축 사

동학농민운동의 중심에 자리했던 금산군에서 펼쳐지는 제8회 금산 동학농민혁명 및 제6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동복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금산은 최초의 기포지, 최후의 항전지로 재조명되었으며, 3월 1차 동학혁명 봉기의 원천적 에너지였음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발표회를 통해 다시 한번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금산지역의 중요성과 충절의 고장인 우리 금산의 정신이 곧 동학농민혁명임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호기심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욱더 발전하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11. 30.

금 산 군 수 박 동 철

축 사



존경하는 동학혁명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

경인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의 길목에서 『제8회 금산 동학혁명 학술발표회』 및 『제6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정성들여 준비하신 사단법인 금산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동복 이사장님과, 역사적 의의를 재정립 하기 위해 주제발표를 준비 하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성주현 교수님과, 정을경 연구원님, 홍제연 선임연구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지역은 동학농민 혁명시 최초로 횃불을 밝히고 일어난 봉기지이며, 전국의 동학군이 모두 패배 했을 때 일본군과 싸우다 최후로 순국한 향토지입니다.

또한 동학군의 전봉준 등의 정신적 지도자로 알려진 서장옥 선생은 동학혁명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충청도와 전라도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포교는 물론 강경파로 활약한 인물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현재 까지도 대외적으로 역사적인 조명과 평가가 미흡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사상은 평등사상과, 보국안민을 실현하기 위한 민중항쟁으로 훗날 의병항쟁 활동, 3.1 독립운동은 물론 근대사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정신은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써

오늘날의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여는 근대민족사 정립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발표회를 계기로 우리금산이 동학농민운동의 성지로서 재조명이 필요하며, 성인들의 발자취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규명과 함께 더 나아가복원을 이루어 내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올 한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시고,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 11. 30.

금산군의회 의장 김 복 만

동학농민혁명사의 오류와, 전봉준장군 자력으로 동학농민혁명 봉기를 못했다.

이 동 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장)

<머 리 말>

동학농민혁명사의 본질적 오류를 밝힌다.

1.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동학교단의 지도자가 전 동학농민혁명 봉기를 지휘 하여야 하는데 그간의 학계에서는 간과(看過; 따지지 않고 그대로 보아 넘김)했다.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혁명을 고부민란을 시작으로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으로 연계 동학혁명의 중심에서 발전시킨 최고지도자란 논거(論據; 의론이나 논설이 성립하는 근거가 되는 것)는 오류다. 동학농민혁명의 봉기 시작은 언제부터 어떤 명분으로 동학교단의 어떤 세력이 그중 누가 중심이 되어 지휘하였는가를 정리해야 한다.

2. 전봉준장군이 자력으로 봉기 하지못한 사연과, 전봉준장군의 고부민란이 동학농민혁명 봉기로 인정해야 하는가 아닌가 이제는 학계에서 정리 되어야 한다.

3. 1894년 3월 1차 동학농민혁명봉기와 “서장옥” 과의관계 실상을 밝히고,

4. 금산지역 연합 동학농민혁명군의 남접지원은 남접(전봉준) 봉기부터 우금티전투 까지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4장으로 밝혀 나아 가겠습니다.

1) 동학교 교단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어낸 최고 지도자는 누가, 시작은 언제부터, 어떤명분으로, 어떤 세력이 그중에 누가 중심이 되어 지휘하였는가를 밝힌다.

ㄱ. 1871년 3월 이필제가 주도하고 최시형 선생이 적극 가담했던 “영해변란”의 실패는 최시형 선생이 일생에 두고 두고 후회하고 남게 하는 커다란 시련이었다. 이후 1700년대부터 1800중반까지 동학교단은 탄압에 시달려 경상도 중심의 조직을 거의다 잃고 최시형을 비롯한 소수의 인원들만 강원도 남부와 충청도 산악지대로 은신 잠행 지하포교로 활동하였고, 1880년대 초반부터 지하포교 활동에서 벗어나 충청도 전라도 평야지대를 중심으로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조직정비 지도체제정비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동학 교세는 전라도와 충청도에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렇게 동학교가 공공연히 이루어지자 당연히 지방관에 의해 탄압을 받게 됐다. 일부지방관들은 동학포교에 대해 금하는 종교라는 구실로 교도들에 수탈행위를 일삼았다. 이때 교단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으나 90,92년 두해에 걸쳐 서장옥 서병학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 전개 된것이 “교조신원운동”이다.

(1) 동학교단내에서 “교조신원운동”이 동학농민혁명봉기로 시작.

“교조신원운동”은 공주집회에서부터 삼례집회, 광화문복합상소, 보은집회 원평집회, 로 순서대로 교단내의 추진세력이 누구이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자.

1) 공주집회

1892년 서장옥과 서병학이 함께 최시형을 만나 소장을 만들어 궁궐앞에서 교주 최제우의 신원(伸冤)을 호소하자고 했으나 최시형은 동학의 최고지도자로서 신증을 기해야 하는 입장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입의통문(立義通文)을 1892년 10월 17일에 발표하고 이를 통하여 교조신원은 교도들의 의무임을 교조신원의 방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것을 지시했다. 이때 최시형은 입의통문을 각지의 동학지도자들과 동학교도들에게 발송한 통문임을 알수 있다. 이 근거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천도교 호암수도원에서 찾게된 “해월문집”에는 1892년 10월 17일 ‘북집주’의 이름의 “입의통문”¹⁾이 실려있다.

이리하여 서병학 서장옥등이 교도들을 모아 충청 감사 조병식에게 각도 동학유생의 송단자(各道 東學儒生義送單子)를 올렸는데 그내용은 첫째, 동학은 불교 유교 도교를 합한 것으로 이단이 아니라는점 둘째; 천주교를 비롯한 서양문물이 들어와 그해독이 엄청나며 일본이 들어와 통상을 통한 이익 독점과 화적 행위로 인한 조선백성의 어려움 셋째; 동학교도들이 각읍에서 이단으로 몰려 이들이 옥에 갇혔으니 풀어 달라는것 넷째; 교주 최제우의 신원(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죄를 씻음)을 왕에게 의견을 아뢰 달라 했다.

이에 대하여 충청 감사 조병식은 동학의 인정 여부는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고 밝히고, 관찰지역 관리들에게 동학도에 대한 탐학을 금지 하겠다 약속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수탈 대상으로만 비쳐졌던 민중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주체적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고, 공주 집회를 통해 민중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공주집회는 성과를 얻었다. 여기서 언급할 말은 이렇게 관아에 수탈만 당하던 동학교인들이 서장옥 서병학의 주장이 반영되었으나 여기서 집고 넘어 가야할 것은, 그간의 학계에서는 최시형이 반대하여 서장옥 서병학이 그들 주장으로 공주집회를 행했다. 그러나 앞에서 찾아진 “해월문집”의 ‘입의통문’을 최시형이 각도의 동학교도에게 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 “교조 최제우의 신원 대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뜻으로 공주집회를 승인하는 뜻을 증명하는것이다²⁾ ‘해월문집’에는 공주집회를 위

1) “해월문집”

2) “한국학자료총서9:동학농민편”(한국정신문화원,1996년참조)

3)소통하는 우리역사: 조광한 2008년 발행,76p

해 “공주의 송소”가 설치 되었음을 알려주는 내용도 있다. 공주의 송소는 청주로부터 오는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서장옥 서병학이 먼저 최시형에게 건의하고 최시형의 승인을 받아 서장옥 서병학이 공주취회를 주도 성사 시켰음을 알수있다.

2)삼례 집회

1892년 11월 3일 전라도 삼례에서 수천명이 모여 10여일간 농성 집회를 열었다. 공주집회에서 충청감사로 부터 관리들이 부당한 탐학을 금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동학교인들은 이에 고무되어 다시 삼례에서 수천명이 집결했다.

이때에도 서장옥 서병학이 최시형에게 건의하여 이루어져, 이때 서병학이 전라 감사에게 교조신원운동을 비롯 민중들의 여러 요구를 서병학이 글을 작성하여 탄압이 두려워할때 전라우도에서 전봉준 좌도에서 유태홍이 자진하여 소장을 감사에게 제출할 것을 청하게 되었다. 이 집회의 결과는 공주집회와 같은 결과로 열읍의 수령과 관리들의 탐학과 재물의 토색질을 동학도에 금함을 관문에 내자 삼례집회는 해산 하였으나,

(1) 서장옥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삼례집회 해산전에, 삼례집회에서 전봉준은 전라감사에게 소장을 전달하면서, 두각을 들어 내기 시작하여 김개남, 김덕명, 손화중과 함께 무장군수에게 빼앗긴 돈 1000냥을 찾으려 무리를 이끌 정도로 영향력을 확대 시켜 나갔고 이들의 연대 활동은 1892년 7월 서장옥등이 최시형을 상대로 집회를 요구하는 힘이 되도록 전봉준등이 호남일대에서 군중을 이끌었던 것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1893년 1월 10일 전봉준이 남원 일대에 패서를 붙이고 무장 투쟁을 꾀했다.³⁾

이후 서장옥은 서울에 상경하여 1893년 2월 광화문복합상소 계획을 무력항쟁으로 전환 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동학교 상충지도부에서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거치면서 동학교 교단의 상충 지도부와는 다른 지도 체제, 즉 서장옥을 중심으로한 남접 세력을 확대 형성 시켜 나갔으며, 남접의 독자적인 활동은 동학교단의 상충부와 갈등을 불러왔다,

‘동학사’에서는 “호남의 전봉준과 호서의 서장옥은 국가의 역적, 사문의 난적이다, 우리는 속히 결속하여 이들을 공격해야 할 것이다”⁴⁾

삼례집회를 통해 남접과 서장옥은 무력투쟁의 길로 들어섰음을 방증 하는 대목이다, 그간의 학계에서 이어지는 광화문복합상소에서 패서 사건이나 무력으로 간당을 소탕하는 서장옥과 남접의 학계의 추측은 이제 서장옥 남접의 행동으로 정리 되어야 한다.

(2) 삼례집회에서 서장옥과 서병학은 지방관의 권한 밖안일, 교조신원운동을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결정하여 광화문 복합상소가 시작되었다.

4) 앞 책자와 같음

3). 광화문복합상소

1893년 2월 11일 박광호를 대표로한 40여명의 동학교 대표단이 광화문 앞에서 사흘 밤낮으로 업드려 상소했으니 이것이 광화문 복합상소이다.

처음에는 절차의 문제로 상소조차 조정에서는 받지 않았다.

14일에는 조정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너희들은 각자 집에 돌아가 생업에 힘쓰고 있어라, 그러면 이에 소원에 따라 시행하리라”는 고종의 답신이 내렸다. 이에 동학 대표부는 복합상소를 중지하고 바로 해산했다. 이후에 동학교에 돌아 온것은 더욱 가혹한 탄압뿐 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로 인해 동학교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기득권층에 기대한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투쟁의 방법 또한 새롭게 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1) 한편복합상소가 진행될때 서울에서는 서장옥, 서병학이 남접계 전봉준등과, 미국 공사관을 비롯하여 교회 외인 주택에 패서사건을 이르켰다고 믿는다. 그 패서에는 서양인의 침투와 기독교 포교 활동을 비난하고, 만약 퇴거치 않을 때는 3월 7일을 기하여 “우리 충신의 갑옷과 인의(仁義)의 창칼을 갖고 성토하고 토벌하겠다⁵⁾ 일본공사관에는 풍신수길의 숙원을 지적하여 뜻을 같이 할 수 없어 토벌하겠다. 그리고 즉시 퇴거 할 것을 요구하였고⁶⁾ 이 때문에 미국 공사관에서는 조선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영국 공사관에서는 청국에 군함 파견을 원세개에 요청하였으며 일본공사는 본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거류민들은 인천에 집결하라 지시했다.

6)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복합상소가 3월 11일 부터인데, 2월 14일 미국인 선교사 길포트 학당에 패서가 붙기 시작하더니 18일에는 미국인 존스의 집 교회당, 20일 전후로 프랑스 공사관 3월 2일에는 일본공사관까지 척왜양 주장의 4종 패서가 붙었다.⁷⁾

이렇게 서울의 외국인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한 “패서사건”은 서장옥과 서병학이 남접과 더불어 했다고 학계에서는 그간 확실한 단정을 보류하고 추측이란 말로 대부분 발표 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새로운 근거로 확정적인 답을 할 수 있겠으며, 동학농민혁명사에도 큰 근거와 판단에 힘이 될것을 본 필자는 확신한다.

그리고 서장옥 서병학은 남접과 “당초 교인들을 군복을 입히고 무장 하여 조정에 간당을 소탕 하자는 주장도 했으나 불발되었다.”

결과적으로 광화문복합상소는 “유생”들의 금압과 엄벌을 요구하는 상소에 압도되어 한장의 국왕 전교로 동학교의 신원운동의 뜻은 빛을 잃었다.

5)한국근대민족운동사2부“봉건체제 해체기의 갑오농민전쟁”강제연 논문 291p

6)앞에논문 291p ‘일본외교문서’제26권,pp, 416

7)소통하는 우리역사 조광한 2008년발행 74p

4) 보은집회와 원평(금구)집회.

(1) 보은집회

광화문복합상소에 동학의 배후 세력이 없었기에, 국왕의 교지 한 장에 상소단은 해산했다.

과정속에 “척왜양”의 벽보사건으로 서울의 이국인들이 혼란이 있었지만....., 1893년 3월 11일(양력 4월 25일)에 동학교주 최시형의 명으로 충청, 전라도는 물론 경기, 경상도 각 지방의 접주가 교도들을 이끌고 공개적으로 보은집회에 모이는 것을 “지방관들”은 방관하는 것 이외에 저지할 방법이 있지 못했다.

8) "척왜양"의 구호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간 앞의 집회에서도 척왜양의 구호가 없었던것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신원운동"이 빠졌다.

5월 25일 까지 2000여명의 군중이 접주 인솔하에 질서 정연히 모여들어 장내리에 뒷산 옥녀봉 아래 석성을 쌓고 냇가에 진지를 만들었다. 이들은 민가에 잠을 자기도 하고 초막을 400여채을 만들기도 하여 웅거하였다. “척왜양”의 대기, 각접을 표시하는 중기 다수의 소기를 걸고, 많은 사람이 한사람 같이 질서정연이 움직이고, 장사치의 음식값은 반듯이 지불하고, 배설물은 땅에 묻고, 복장은 단정히 하는 등 규율은 엄정하였다. 이에 보은군수 이중익의 해산 설득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의 창의(倡義)는 결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척왜양을 위함이라 순관(巡官)의 지시와 주관(主官)의 설득이 있어도 누구도 중지 할 수 없다.”

9)8) 관리들이 이들을 맞이 하기를 도적과 같이하여, 학대가 극도에 달해있다. 이제 만일 퇴산 시킨다면 사람들이 알아차려 비류(匪類)로 되고 말 것이다. 단지 원하는 것은 아랫것들의 바램을 조정에 아뢰어 분명한 조치를 내리어 떳떳한 백성으로 인정 해 준다면, 공손히 정연히 해산하여 삶에 안주 할 수 있다고 척왜양의 뜻을 조정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척왜양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는 것이었고, 국왕은 청국이 영국의 힘을 빌어 태평천국 혁명을 탄압한 전례를 들어, 청명차용에 자문을 요구하는 형편이었다, 결국 조정은 회유와 탄압의 양면책을 취하기로하고, 충청도 관찰사 조병식, 전라도 관찰사 이경식을 징계 처리하기로 하고 각 각 경질하였다.

한편 어윤중을 양호선무사로 파견하기로 하고, 한편으로는 장위영 정령관 홍계훈에게 600명을 주어 충청도 청주로 출동 시켰다.

무력을 배경으로 무조건 해산 명령을 하는 선무사에 동학교로서는 대응 방법이 없었다. 결국 중앙정부를 동요시키고 양도 관찰사를 해임시킴으로써 보은집회는 20일 만에 해산됐다.

그러나 보은집회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광범한 지역에서 반봉건정부 세력을 집결하여 정부와 정면에서 정치적으로 대결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8)동학란기록 상권 (한국자료총서)제10권 p,111취어

한편, 보은집회에서 선무사 어윤중이 이집회 주도자 서병학을 만나서 고종의 윤음을 전달하고 해산을 종용하자 서병학은 삼일 이내에 해산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중에 한사람이 이름을 밝히면서 ‘나는 서병학이란 이름의 사람인데 동학에 들어와 남의 지목을 받은지 오래되었다. 마땅히 보은집회의 내력을 상세히 말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원평집회는 얼핏 보기는 보은집회와 같지만 종류가 다르다. 통문(通文)을 돌리고 방문(彷徨)을 게시한 것은 모두 그들이 한짓이다. 그들의 성향은 극히 수상하니 원컨대 공개서는 자세히 살피시고 조사, 판단하여 우리를 그들과 혼동하지말고 옥석을 구별해주시오’ 라고 했는데 신(臣)은 그말을 따로이 기록하여 올려 보내오며.. “이와같은 서병학의 행위는 원평에서 지휘하고 있는 서장옥을 지목하고 서장옥이 원평의 집회는 황하일, 전봉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서병학의 배신행위는 이때부터 시작이다. 서병학은 서장옥과 동학지도부 간부로서 교조신원운동에서부터 지도부 내의 강경파로 서울 광화문복합상소 시 ”교도들을 군복을 입히고 병대와 협동하여 조정의 간당을 소탕하고 조정을 크게 개혁하자“고 서장옥과 주장하고 광화문복합상소가 실패되고도 동학교도와 농민지도자 1만명이 상경해 은밀히 활동하면서 외국공관, 교회, 성당벽에 ”이땅에서 물러가라 “라는 글을 붙였던 그다. 그는 보은집회 해산후 최시형과 서병학은 왜 달아났던가? 최시형은 끊임없이 참행하며 이루어 놓은 교단이 와해되는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 시기가 일으니 감춰진 천기를 들어내지 말라 “는 뜻으로 해산 시킨것이다,그러나 서병학의 도피는 달랐다, 서병학은 어떤 내력을 지닌 인물인가? 그는 출생지도 사망년대도 확인되지도 않았다. 여하튼 서병학은 이후 포도대장겸 도순찰사에 빌붙어 밀정 노릇과 최시형과 손병희를 잡기 위해 관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다. 북접게 지도부 투항태도는 농민대중의 반발을 물러일으켰다

(2)원평집회(금구집회)

보은집회가 진행되어 갈수록 원평집회가 황하일 전봉준을 중심으로 뜨거운 열기로 진행됐다. 모인 인원은 신임 전라감사로 부임하는 김문현이 전라감영에 도착했을때 군마사였던 최영년의 보고를 받는데 “금구에 운집한 동도가 거의 1만명이나 된다” 했다.

원평집회는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없으나 어윤중이 3월 17일 고종으로부터 양호선무사로 임명장을 받은 기록을 보아 17일 이전에 모이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보은집회가 해산되니 원평집회도 독자적으로 집회를 지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평에 모인 동학도는 일부 각자 귀가하고, 일부는 보은으로 향했으나 금산에 도착했을때 어윤중이 원평을 향해오는 중 객사 문밖에서 윤음과 보은집회 해산소식을 듣고 후일을 기약하고 해산했다.

<맺 는 말>

동학교로써 1860년부터 시작으로 얼마되지 않아 1864년 3월 교조 최제우가 사교라는 이유로 처형되고 부터 종교 탄압은 계속되고 잠행포교가 1880년까지 지속되다. 1880년 후반부터 충청도, 전라도 평야지로 진출된 동학교가 사교라고 지방관리로부터 천주교도 공인된 상황에서 탄압과 억압에 시달린 교단 간부들중 개혁적인 중심인물들이 교조 신원운동을 교주 최시형에게 압박을 가하며 신원운동이란 명분으로 광화문복합상소까지 점진적 발전이 있었고, 대정부 투쟁에서 “척왜양” 이 민중들의 생각과, 시야가 넓어지게되고 실질적 민중에 접하기 쉬워져, 보은집회 원평집회부터는 교조신원운동이 들어가고 “척왜양” 이 등장한 이유가 되고, 종단간부간 내부적으로는 신앙에 충실하려는 세력과 개혁적이며 무력투쟁의 길로 갈려는 세력갈등이 삼례집회 이후부터 골이 깊어 갈등이 커졌다. 보은집회, 원평집회에서 개혁적인 세력은 무장투쟁만이 길이다라는 자각을 갖게 되었으니 그들이 서장옥을 중심으로한 간부와 남접의 중심인물들이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이 남접의 중심으로 갔다. 그들 남접의 최고지도자는 “서장옥” 이다라고 말하며 아직 충청도지역, 전라도 동북부지역, 즉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사가 밝혀져야 한국의 동학농민혁명사가 완성 된다는 것을 밝히며, 동학농민혁명 전쟁전 단계교조 신원집회를 맺겠습니다.

2)전봉준장군의 고부민란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인정 해야하는가? 아닌가?와 전봉준장군이 자력으로 왜 봉기하지 못했는가?

(1) 고부민란의 이해 에서 중요한점은 “동학농민 봉기계획” 과 고부민란의 관계 고부민란의 발발에서 전봉준이 차지하는 위상, 고부민란과 농민전쟁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발전되어 갔다.

1단계; 1894년 농민전쟁이 고부농민항쟁.

2단계; 1894년3월 1차농민전쟁.

3단계; 집강소 개혁.

4단계; 2차 농민전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전쟁의 각단계에서 그 사이의 발전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에서는 아직도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서 ‘고부민란’ 단계에서 어떻게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 발전되어 갔는가에 대한 설명은 핵심적으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이 두 단계사이에 큰 낙차가 있다. 그렇다면 ‘고부민란’ 은 어떻게 ‘고부민란’ 은 ‘농민전쟁’ 의 한단계의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는 이유를 더 분명히 해야한다.

지금 알려진 고부민란과 무장기포에 대한 연구를 알아보고 답을 얻어 보기로 하지요. 1894년 농민전쟁의 1차봉기가 1894년 3월20일 ‘무장기포’ 에서 시작함을 밝히면서 군현에 제한되었던 국지성을 탈피하게된 사실이 크게 주목된바있다. 고부민란은 국지성

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진해산 하였으며 본격적인 농민전쟁은 무장기포로 비롯된다.⁹⁾

1차 봉기는 3월 20일 전라도 무장현에서 일어 났고, 이는 종래의 민란형태에서 농민 전쟁 형태로 질적 발전을 하게 되는 결정적 전기였던 것이었다. 그렇지만 고부민란과 무장기포는 단절된 것인가. ‘1농민전쟁’은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로 출발한 것인가? 이와 같은 의문은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중앙권력의 교체를 기도했다는 농민주체들의 전쟁구상 및 그들의 조직적 기반과 관련하여 음미해 볼 문제라 하겠다.¹⁰⁾

‘농민군지도부가 언제부터 농민전쟁을 계획했으며 어떻게 그것을 시행에 옮기려 하였는가 하는 점은 아직도 완전히 들어나지않고 있다. 그렇지만 전봉준등 농민군 지도부는 1893년 교단주도의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정치운동화 하였고, 그것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거기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교조신원운동은 과정에서 들어난 농민들의 반봉건 열망을 정치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것이다.’¹¹⁾

본필자의 고부민란이 동학농민혁명 차원이나?에 대한 생각을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부민란은;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사의 학자들 께서 충청도, 동남부, 전라도 동북부 즉 금산지역을 중심으로한 주변의 동학농민혁명사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묻힌, 잃어버린 동학농민혁명사 상태에서, 전조선 동학혁명사 차원에서의 본질적으로 반쪽 동학농민혁명사 즉 전봉준, 남접, 동학농민혁명사 만 보고 알고있었다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사 학자님들께!

동학농민혁명사가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사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금산 주변지역 충청도 황간, 영동, 청산, 옥천, 청주, 공주, 회덕, 진잠, 전라도 무주, 진안, 임실, 장수, 고산, 진산의 금산동학농민혁명 봉기가 1894년 3월 8일 금산에서 공동연합 봉기한 사실과 이 전지역이 남접의 지도자 서장옥 같이 금산에서 봉기한 지역농민군이 서장옥 관리 지역이었고, 서장옥이 전봉준의 동학혁명봉기로 발전시키지 못하니, 금산지역 동학농민군들이 고부에 16일에 꺼져가는 전봉준 봉기를 지원 1894년 3월 20일에 봉기하게 시키고, 전라감영군이 공격한다 하여 금구까지 전봉준 부대가 전주를 4월 4일쯤 전주성 함락을 목표로 금구까지 갔다가 부안으로 후퇴 했을때 4월 2일 진산 방축리에서 금산 민보군의 공격을 받은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은 114명이나 살육을 당하고도 전봉준을 지원하기 위해 1000명이 방축리를 출발, 고부 전봉준 본대와 합류했을 때 4~5만명이 되었고, 그들은 전봉준의 4월 7일 황토현 전투에 원천적 힘이 되었고, 전주성 함락에도 원천적인 힘을 일구어 낸데는 서장옥 선생의 지

9) 신용하 1985(갑오농민전쟁의제1차농민전쟁)<한국학보>40

10) 정창열 앞논문 104~129쪽 및 127~129쪽

11) 배항섭(1890년초 민중의동향과 고부민란)

위로 이루어진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의 그 공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사라지고, 가장 처절하고, 처참한 피해를 본 금산이란 지역이 조정에서 충청도, 전라도 동학도를 토벌하라고,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했는데 어찌 학계에서는 금산 주변지역 동학농민군의 역사는 왜 결눈질도 않겠는지 궁금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 3월 1차전쟁의 시작이고 남접의 역사적 평가된 역사 뒤에 원천적인 금산동학농민혁명 힘이 있었던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봉준 장군을 편향적으로 최고 지도자로 영웅을 만드는데, 학계에서 노력했지만, 본 필자는 주장합니다. 전봉준 장군은 동학농민혁명에 야전군 사령관이지만 최고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 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는 동학교단에서 중심인자가 최고지도자가 있는 것이지, 동학에 입도했다고 하는 전봉준장군은 1892년 12말쯤인 그가 동학농민혁명을 지휘했다는 것은 지나친 간과(看過)아니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전봉준장군이 동학교에 신자이다 아니다로 학계에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을 본질적으로 오류시킨 일 아닙니까? 전봉준장군은 민란에서 부터 교조신원운동 동학농민혁명 진행까지 서장옥선생의 지도를 받고 남접에서 선택된 분이지 동학혁명의 동학교를 대표한 동학농민혁명을 최고 지도한 분은 될 수 없고, 학계에서 본질적으로 오류시킨 큰 잘못이라고 본 필자는 지적합니다. 충청도 동학농민군과 전라도 동북부 동학농민군의 남접에 지원 활동이 민란에서 무장 전봉준의 봉기를 일으켜 세웠다는 역사가 진실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지역적 동학농민혁명 기포도 동학교 지도부의 관련하여 기포해야 동학농민혁명 기포가 인정되는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까? 학계에서는 이역사의 진실에 노력 노력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2)전봉준 장군이 “고부 민란에서” 자력으로 ‘동학농민혁명봉기’ 로 왜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1. 전봉준장군이 고부민란을 이르켰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 믿고, 본란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에서 간략하게 봉기에서 일자 순으로 나열하며,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사건 설명을 하며 진행하는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4년 1월 10일 조병갑이 1월 9일 고부군수로 재 발령받아 전봉준장군 민란봉기하다.

2.1월 17일 ‘말목장터 “로 이진했다.(전봉준은 농민전쟁봉기로 해서 서울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 고부민란 ‘의난민들은 상당기간 해산하지 않은 채 둔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와 ’ 난민간 ‘에는 갈등이 노정되었으며 이웃 읍에서도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 난민 ‘들은 관아에서 일단 물러나기는 했지만 해산하지 않고 말목장터에 모여 있었다. 관아를 점령해있는것도 아니고 해산하는 것도 아닌 미묘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3. 2월 20일 57개주 격문을 발송하고,

4. 2월 25일 말목장터에서 백산으로 이동하였고, 전봉준은 함열 조운창에 나가 난민들에게 전운영을 격파하고 전운사 조필영을 징치 할 것을 촉구하였다. 격문을 보내 이어 일대의 많은 고을이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던 폐해의 근원이 ‘전운영’을 공격함으로써 인근 읍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봉준이 뜻은 좌절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 ‘농민전쟁’ 수행할 만한 주체적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도부와 ‘난민’ 간에 의식상의 차이가 노정되었고 또 인근읍의 호응이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실패하였다.

5. 3월 1일 줄포 세고 공격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실패 했다, 난민들이 월경하면 역적으로 처다된다는 강박 관념이 그런 결과를 가져 왔다.

6. 3월 3일 신임군수 박원명이 회유로 난민들 자진 해산했다.

7. 3월 13일 전봉준 주력부대 해산, 50명만 같이 손화중에게로 피신했다.

이와 같이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은 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7일후 3월 20일 전봉준 장군이 무장에서 기포를 했다. 이것은 하늘이 준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 서장옥선생이 충청도 동남부, 전라도 동북부 금산에서 공동 봉기했던 금산지역 동학농민군들이 3월 16일부터 지원, 현지에 이루어지고, 동지라 할 수 있는 손화중 선생이 시기가 아니라고 참여치 않았던 전봉준이 다른지역 남접에 동학혁명군들이 공동 봉기로 3월 20일 전봉준이 자력으로 못한 타지역 지원으로 공동봉기 했다. 여기에는 남접의 지도자 서장옥, 황하일 지도자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사가 오류된 반쪽 전봉준장군 남접 중심의 동학농민혁명사가 아니라, 전라도 동북부, 충청도 동남부의 동학농민혁명사가 밝혀지고 포함되어야만이 한국 동학농민혁명사가 완성된다. 그간의 동학농민혁명사의 잊혀진 서포(서장옥포)의 모든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진실 활동을 밝히고저 노력한다.

1.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군 연합봉기가 왜 어떡해 먼저 봉기되고(1894.3.8봉기) 남접 전봉준장군을 어떻게 도왔으며, 그 공을 알아보자.

1)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의 연합봉기는 동학농민혁명 최초의 봉기인 1894년 3월 8일 이었다.

ㄱ.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 봉기 일자에 대한 학계의 기록을 보면,

1) 1894년 3월초(피화록), 2) 1894년 3월 8일(금산군지), 3) 1894년 3월 12일(황현 선생의 “오하기문”)

위와 같이 3개의 기록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사의 대가이신 “표영삼” 선생님께서 어찌

했던 1894년 3월 20일 전봉준장군 보다는 빠르니 최초의 봉기라고 논문에 발표하셨다.

2) 그 이후 신영우(충북대교수), 신순철(원광대교수), 이만열(전국사편찬위원장), 박맹수(원광대교수)가 논문발표를 1894년 3월 8일로 발표(2000년대)하셨고, 이어 조광환(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소통하는 우리역사에 발표도 있었다.

3) 2007년에 금산에 묻혀있던 “금산동도 작요 내력기”가 발견되어 1894년 3월 8일로 최초의 봉기지로 확인되어 입증자료가 되었다.



서장옥과 금산지역 동학군의 활동

성주현(부천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서장옥과 금산지역 동학
3. 금산지역 동학군의 조직과 활동
4. 맺음말

1. 머리말

1994년 동학혁명 1백주년을 기해 왕성하게 연구되었던 동학혁명은 이제 어느덧 뒤안길의 느낌이 들 정도로 연구와 관심이 한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에서 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금산지역의 동학혁명은 올곧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실 동학혁명 1백주년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학혁명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이해 어느 해보다도 연구성과가 풍성하였다. 마치 해일처럼

금산지역의 동학혁명은 처음과 끝을 함께 하였다. 제원기포를 비롯하여 방축기포, 호남지역 동학군의 연합전선, 황토현전투, 황룡촌전투, 전주성 점령 그리고 금산지역에서의 집강소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고,¹²⁾ 이어 2차 기포에는 소궤니재전투, 용담현 점령, 그리고 동학혁명 최후의 전투인 대둔산전투가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동학군 활동이 바로 금산지역에서 전개되었다.¹³⁾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산지역의 동학혁명 전개과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서장옥과 금산지역 동학과의 관계, 금산지역 동학군의 조직 및 금산지역 동학군의 활동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서장옥과 금산지역 동학

금산지역에 동학이 처음으로 전래된 것은 동학이 창도된 지 2년 후인 1862년이였다.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황현의 『오하기문』에 의하면,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가 호남의 진산과 금산의 산골짜기를 왕래하면서 양민들에게 동학을 포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⁴⁾ 이 시기는 수운 최제우가 동학을 포교한 지 1년 후로 남원 은적암으로 피신길에 나섰던 때였다. 수운 최제우는 당시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왕래하면서 포교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산지역에 동학이 포교되었을까. 이는 아마도 금산지역의 사람들이 동학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운을 찾아가 동학에 입

12) 성주현, 「금산지역의 제1차 동학혁명의 전개」,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317-339쪽.

13) 표영삼, 「1894년의 금산지역 동학혁명」, 제2회 금산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06.

14) 황현, 『오하기문』; 『동학농민사료총서』 1, 사운연구소, 1996, 42쪽.

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남원 은적암으로 피신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동학을 포교하였을 것으로 보는데, 이때 금산지역 사람들이 동학에 입교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금산지역에 포교된 동학은 점차 교세를 확장하게 되었고, 동학혁명 당시에는 그 중심에 섰던 것이다.

동학혁명 당시 금산지역 동학조직을 이끈 인물은 조재벽¹⁵⁾이었다. 동학조직은 전교인과 수교인의 관계를 연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조재벽의 연원은 누구일까. 조재벽의 연원은 서장옥으로 알려졌다.¹⁶⁾ 이는 조재벽이 포교하여 동학 교세를 형성한 금산지역이 서장옥이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금산지역 동학군의 활동은 서장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장옥은 어떠한 인물인가. 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당시 그에 대한 평을 통해 서장옥의 됃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서장옥은 서인주 또는 서일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청주 지방¹⁷⁾ 출신, 승려로 알려졌다. 1883년에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 동학을 포교하였다. 이러한 그의 활동으로 서장옥은 최시형의 최측근으로 부상하였으며, 인척 관계가 되었다.¹⁸⁾ 1887년 3월에는 해월 최시형과 함께 강원도 정선군 적조암에서 함께 수련을 하였다.¹⁹⁾ 뿐만 아니라 당시 동학의 발전과 제도적 정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²⁰⁾

특히 서장옥은 해월 최시형과 각별한 관계였다. 서장옥은 1889년 10월 28일 체포되었다가 이듬해 유배를 당하자 해월 최시형은 서장옥을 구하기 위해 500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그를 위해 때때마다 기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장옥의 처지와 함께 의복도 갈아입지 않았고, 잠을 잘 때도 이불을 덮지 않을 정도였다.²¹⁾ 이처럼 교단 최고 책임자인 최시형과의 관계, 그리고 동학 포교와 제도적 정비로 인해 서장옥은 교단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른바 서포라 불렸다. 「오하기문」에는 서장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처음 동학에서는 그 무리를 包라 불렀는데, 法包와 西包가 있었다. 법포는 최시형을 받드는데, 법현이라는 최시형의 호에서 이름을 따왔다. 서포는 서장옥을 받든다. 서장옥은 수원 사람으로 최시형과 함께 교조 최제우를 따라 배웠다. 최제우가 죽자 각기

15) 조재벽은 1887년에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금산지역 이외에 황간, 옥천, 영동, 청산 등 충청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893년 1월 광화문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해 7월 해월 최시형이 상주 왕실촌에서 청산 문암으로 이주할 때 적극 후원하였다. 특히 문암에서 해월 최시형은 김성원의 집에 머물렀는데, 김성원은 조재벽의 연원이었다.(성주현, 「금산지역의 제1차 동학혁명의 전개」,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320쪽.)

16) 『김낙봉이력』, 갑오년조;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221쪽.

17) 그러나 황현 매천에 의하면, 서장옥은 수원 출신이라고 하였다.

18) 최시형의 아들 덕기는 음선장의 둘째 딸과 혼인하였다. 음선장의 첫째 딸은 서인주와 결혼하였다. 음선장은 서인주는 권유에 따라 1884년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서인주의 증매로 해월 최시형과 사돈관계를 맺었다. 이에 따라 덕기와 서인주는 동서관계가 되었으며, 해월 최시형과 인척관계가 되었다.(표영삼, 『동학』 2, 통나무, 2005, 140쪽)

19) 『시천교역사』, 정해년조; 유태하, 「동학난중기」, 정해년조; 『정선문화』 12, 정선문화원, 2009, 194쪽.

20) 장영민, 「최시형과 서장옥」,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서경문화사, 123-124쪽.

21) 박맹수, 「최시형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172쪽.

도당을 세워 서로 전수하면서 이를 布德이라 이름하였다. 이들은 동학이 꺾기할 때 서포가 먼저 일어나고 법포가 뒤에 일어나기로 서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起包라 이름하고 법포는 坐包라 불렀다.²²⁾

이 기록은 전해들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장옥이 동학 교단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단 내에서 그의 영향력 정도를 알 수 있다.

동학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서장옥은 1889년 10월 말경 관에 피체되었다. 권병덕의 기록에 의하면, “여름 내내 지목이 계속되다가 10월에 서인주(서장옥), 강한형, 신정엽, 정현섭 등이 관에 체포되었다” 라고 하였다.²³⁾ 서장옥은 신정엽과 함께 절해고도에 유배되었다가 1892년 6월에 석방되었다.²⁴⁾ 이후 서장옥은 교조신원운동을 주도하였다. 교조신원운동은 1871년 이필제가 처음으로 전개한 바 있지만, 이로 인해 동학교단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후 20년 만에 동학교단은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바로 서장옥이 그 중심에 있었다.

교조신원운동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892년 7월경이었다. 서장옥은 석방된 직후부터 교조신원운동을 준비하였다. 이는 아마도 유배 중에 구상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같이 탄압을 받던 서학은 신앙의 자유가 인정된 상황에서 동학만 여전히 탄압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없다면 자신 처럼 많은 동학교인들이 체포되어 옥중에 있거나 유배 등으로 끊임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에 서장옥은 유배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교조신원운동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서장옥은 서병학과 함께 1892년 7월 상주 왕실촌에 있던 해월 최시형을 찾아가 “방금 우리 도의 급한 일은 선사의 신원 일사에 있습니다” 라고 하여,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해월 최시형은 일단 보류하였다.²⁵⁾ 그러나 10월에 이르러 최시형은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해월 최시형은 교단 내에 교조신원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자 이를 수용하여 입의문 발표하고 교조신원운동을 전개기로 한 것이다.²⁶⁾ 이에 서장옥은 충청관찰사 조병식에게 먼저 의송단자를 보내는 한편 전라관찰사에게 보낼 글을 준비하면서 교인들에게도 공주로 집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격문을 띄웠다. 10월 20일경 서장옥 등 8명이 장두가 되어 1천여 명의 동

22) 황현, 「오하기문」, 갑오년조.

23) 권병덕, 『권병덕일기』, 포덕 30년조. 이외에도 서인주가 피체된 기록은 『시천교역사』 기축년조와 『해월선생문집』에도 있다.

24) 『동학도종역사』, 임신년조.

25) 『천도교서』, 포덕 33년 인진년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거절하였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해월 최시형은 당시의 상황과 1871년 교조신원운동 등을 생각하여 당장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시기에 대한 조정과 교단 내의 의사를 들어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해월 최시형은 서인주의 의견에 대해 신중한 표현으로 유보하였던 것이다.

26) 오지영(이규태 교수), 『동학사』, 문선각, 1973, 139쪽.

학교인을 이끌고 공주교조신원운동을 주도하였다. 즉 서장옥이 주도한 공주교조신원운동은 10월 20일 공주에 집결하여 21일 에 충청감사에게 의송단자를 올렸으며, 22일 충청감사의 제움을 받았다. 24일에는 감사가 각 군현에 감결에 내려진 것을 확인하고 25일 해산하였다.²⁷⁾

그러나 교조신원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장옥은 공주교조신원운동에 이어 전개된 삼례교조신원운동도 주도하였다. 충청감사로 상대로 교조신원운동을 주도한 서장옥은 닦아 계획대로 잔라관찰사를 상대로 교조신원운동 준비에 들어갔다. 1892년 10월 25일 삼례에 동학도회소를 설치한 후 동학교인에게 11월 1일까지 집결하라는 경통을 10월 27일 발송하였다.²⁸⁾ 삼례교조신원운동은 해월 최시형이 주도하고자 하였으나 낙상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삼례교조신원운동은 서장옥이 주도하게 되었다. 서장옥은 의송단자를 전라감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전라감사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서장옥은 7일 만에 다시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보냈다. 동학 교조의 억울함과 동학의 탄압에 대한 금지를 다시금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전라감사는 9일 만에 제사를 통해 답서를 보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은 서장옥 등 동학교인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다짐하였다.

이와 같은 동향에 대해 영장 김시풍은 동학군을 제압하려고 3백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삼례 남쪽 한천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서장옥은 김시풍과 담판을 시도하였다. 김시풍은 서인주에게 “어찌 무리를 모아 태평성세를 어지럽히는가” 하고 힐책하였다. 서장옥은 정중한 자세로 “관리배들이 도인들을 상해하므로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감사에게 의송을 올리려고 모였다. 이 일이 어찌 민심을 현혹하는 일이라 하겠는가” 하면서 대응하였다. 김시풍이 화를 내며 칼로 위협하였지만 서장옥은 예의를 다해 대접하였다. 이에 김시풍은 “동학이 난당인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관대한 것을 알았다. 잘 처리하겠다” 며 호의를 보였다.²⁹⁾ 이는 서장옥의 인품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관의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서장옥은 동학의 핵심지도자로 부상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서장옥은 교단의 최고책임자인 최시형과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삼례교조신원에서 동학교인에 대한 침탈을 금지한다는 감결을 얻어내었지만 동학에 대한 탄압은 여전하였다. 특히 서장옥 연원 관내라 할 수 있는 충청도 영동, 옥천, 청

27) 표영삼, 『동학』 2, 203쪽.

28) 경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통문할 것은 대저 이 세상에 태어나 대선생(수운 최제우-필자주)의 은혜를 입어 도를 받은 여러 군자들은 누구인들 신원하지 못한 것을 원통해 하지 않을 이가 없을 것이다. 이제 30여 년이나 지목의 혐의로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두려워 살아왔으니 이 또한 천운이라 하겠다. 이번에 충청감사에게 신원을 호소하고 전라감사에게 의송하게 된 것 역시 천운이라. 각포 여러 접장들은 일제히 이곳에 모이도록 하라. 알고도 모임에 오지 않은 사람은 어찌 수도하고 오류를 익혔다고 하겠는가. 명색이 사람으로서 선생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을 모른다면 어찌 금수와 멀다하겠는가. 다시 통문을 보낸 후에도 곧 달려오지 않으면 웅당 별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머지않아 하늘의 죄를 얻을 것이니, 다시 무엇을 바랄 것인가. 사람으로 의리를 해치지 않도록 맹성할 것이며, 소인배들의 허튼 말을 듣지 않으면 천만 다행일 것이다. 임진 10월 27일 밤, 전라도 삼례도회소”

29) 『남원군동학사』. 이 책은 유태홍의 구술을 1924년 남원종리원장 최병현이 기록한 것으로, 호남 좌도의 동학조직과 동향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산의 수령들의 탐학이 심하였다. 서장옥 등 동학지도부는 지방관아에서는 교조신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신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서장옥은 광화문교조신원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서장옥이 평화적 신원운동보다는 보다 강경한 방법 즉 정부를 공격하자는 계획을 제안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장옥은 공주와 삼례의 교조신원운동을 주도하였던 관계로 관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서장옥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조재벽이 참여하였다.³⁰⁾

광화문신원운동에서도 정부로부터 뚜렷한 대안을 제시받지 못한 동학지도부는 1893년 3월 충청도 보은에서 신원운동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은에서도 전개된 신원운동에서도 서장옥의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역시 서장옥이 관의 지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의 기록인 「취어」에 의하면, “(동학의) 우두머리는 최시영³¹⁾이고 다음 지도자는 서병학, 이국빈, 손병희, 손사문, 강가, 신가이며 경강총경³²⁾의 접장은 황하일, 서일해(서장옥-필자주)이며 전라도 접장과 윤량도감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도사이다”라고 하여, 서장옥이 보은신원운동에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³³⁾ 그리고 서호포대접주로 서장옥이 임명되었다.³⁴⁾ 이는 보은신원운동에서 서장옥의 적극적인 활동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공주에서부터 시작되어 삼례, 광화문, 보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신원운동에서, 특히 공주와 삼례의 신원운동을 주도하였던 서장옥에게 정부의 지목은 집요하였다.

지금 양호 선무사(兩湖宣撫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를 보니, ‘운음(綸音)을 선포한 후에 보은(報恩)에 모였던 비적(匪賊)들은 이미 다 귀순하거나 해산하였으며 무리를 모은 연유는 이미 서병학(徐丙鶴)의 입에서 드러났습니다. 발표한 통문(通文)과 게시한 방문(榜文)에는 원래 이름이 있지만 정상을 헤아릴 수 없으니 사핵(查覈)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호서(湖西)의 서병학과 호남(湖南)의 김봉집(金鳳集)과 서장옥(徐長玉)은 모두 각각海道(該道)의 도신으로 하여금 잡아다가 영옥(營獄)에 가두고 엄하게 조사하여 등문(登聞)하게 하며, (하략)³⁵⁾

30) 『해월선생문집』, 계사년조. 이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공주와 삼례에서 신원운동을 주도하였던 서장옥이 광화문신원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정 즉 체포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표영삼은 장희용의 글을 통해 피체되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표영삼, 『동학』 2, 268쪽) 장희용의 글 중 서장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해(一海-서장옥, 필자주) 형은 22일 신시경에 좌변영에 이수되어 뜻밖에 천은이 망극하여 지난달(6월-필자주) 28일 신시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동학농민사료총서』 20, 339쪽)

31) 최시영의 오류이다.

32)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를 일컫는다.

33) 「취어」,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2, 34쪽.

34) 『동학도중역사』, 계사년조. 서호포는 강경포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서장옥의 관할이었기 때문이었다.

35) 『고종실록』 34책, 고종 30년 4월 10일조;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4월 10일; 『일성록』 고종 30년 4월 10일; 『본조기사』 권223, 태황제조 43, 계사 30년 4월 10일.

이 글에 의하면, 서장옥을 빨리 잡아들일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장옥은 언제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신원운동 이후 피체되어 2년 동안 구금되었다가 동학혁명이 진행 중인 6월 28일(음)에야 석방되었다.³⁶⁾ 동학혁명 1차 기포에 참여하지 못한 서장옥은 2차 기포 당시에는 공주와 청주 일대에서 활동하였다.³⁷⁾ 동학혁명기 서장옥의 활동은 일본측 정보문서에서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박동진³⁸⁾-필자주) 공주에 머물면서 임기준, 서장옥과 더불어 일을 도모하고³⁹⁾

청주는 지난 달 23일부터 동학도 가운데 서일해라는 자가 수십만의 군중을 인솔하고 수십 겹으로 포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兵使는 城門을 굳게 닫고 외부로부터의 援兵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위급한 상황에 있다.⁴⁰⁾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서장옥은 공주과 청주 일대에서 활동하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공주에서는 대원군이 파견한 박동진을 만나 2차 기포에 대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대원군과 어떤 밀약을 가졌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2차 기포와 관련하여 서로 논의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추정된다. 청주는 서장옥이 거주하였던 지역으로 이 지역 동학군을 규합하여 2차 기포를 준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장옥이 9월 24일 동학군을 지휘하여 청주병영을 포위하기 시작하자 충청병사는 구원을 요청하였다. 청주에서 김개남과 합류한 서장옥은 11월 13일 청주 남석교에서 관군과 전투하였으나 패하였다. 이후 서장옥이 이끈 동학군은 진잠에서도 패하였다.⁴¹⁾ 이후 서장옥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생활하였던 청주 일대가 아니면 각지를 전전하면서 은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 남석교전투와 진잠전투에서 패배한 후 서장옥은 1900년 9월 20일 손천민과 함께 교형에 처해진다.⁴²⁾ 서장옥이 언제 피체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손천민이 체포되었던 1900년 8월이 아닌가 한다.⁴³⁾

36) 「東學黨事件에 대한 會審顯末 具報;장회용 편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 국사편찬위원회, 1993, 54쪽.

37) 일설에 의하면 서장옥은 석방된 이후 대원군을 찾아가 청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밀의하였다고 한다. (『동학당 접주 장두재가 발표한 회장』,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 54-55쪽)

38) 박동진은 선무사로 종사하면서 대원군과 동학군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는데 노력하였다.

39) 「이병휘가 제출한 시말서」,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 58쪽.

40) 「보은동학당에 관한 보고」,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73쪽.

41) 『시문기』 갑오년 11월 11일조;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10쪽.

42) 「1894년 동학난의 주모자 서장옥 손사문에 대한 처분 보고」, 『司法稟報(乙)』, 1900년 9월 20일자;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9월 21일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재형(權在衡)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김영준(金永準)의 보고를 보니, ‘피고 서장옥(徐章玉), 손사문(孫思文)의 안건을 심리한 결과 두 범인은 모두 동학(東學)을 오로지 숭상하였으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홀린 것이 전봉준(全琫準), 김개남(金介男), 최시형(崔時亨)과 같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조율(照律)하면 좌도난정죄(左道亂正罪)에 해당하며 교형(絞刑)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의율(擬律)한 대로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3)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 2006, 119쪽.

이상으로 서장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장옥은 청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지만, 금산지역에 동학을 포교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었다. 그의 직계라 할 수 있는 조재벽은 금산과 황간 등지를 직접 이끌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산지역의 동학은 서장옥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의 지도를 받아 동학혁명에 적극 참여하였다.

3. 금산지역 동학군의 조직과 활동

앞서 서장옥을 통해 금산지역의 동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금산지역은 서장옥의 연원이고 관할이었지만 직접적으로 동학 조직을 이끌었던 인물은 조재벽이었다. 조재벽이 동학교단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983년 10월경이었다. 『해월선생문집』에 의하면, 조재벽은 해월 최시형이 황간을 거쳐 상주 황실촌에 머무를 때 좀더 은신하기 좋은 청산 문암리로 옮길 것을 주선하였다.⁴⁴⁾ 문암리에는 김성원이라는 교인이 있었는데, 바로 조재벽이 동학에 입교케 하였다. 그렇다면 조재벽은 언제 동학에 입도하였을까.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동학도종역사』에 의하면, 1887년 황간에서 입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동학에 입교한 조재벽은 옥천과 영동, 그리고 청산 일대까지 포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1890년경부터 금산을 비롯하여 진산, 용담까지 포교하여 그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⁴⁵⁾ 이로써 금산지역 동학 조직의 연원은 조재벽-서장옥으로 이어졌다. 이후 조재벽은 1893년 전개된 광화문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동학 교단의 주요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금산지역 동학교인들은 3월 보은에서 전개된 신원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취어」에 의하면, “황풍(黃豐), 금의(金義), 충암(忠岩), 강경(江慶)”⁴⁶⁾이라고 쓴 기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재벽 관내의 금산과 황간 등지로 풀이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월 최시형이 동학혁명 당시 머물고 있었던 청산 문암리에 이거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금산지역 동학군이 무장기포보다 앞서 동학혁명의 횃불을 들 수 있었다.⁴⁷⁾

그렇다면 동학혁명 당시 금산지역의 동학조직은 어떠하였을까. 동학혁명 당시 금산지역의 동학조직을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동학혁명 당시 금산지역의 기포와 전투에 참여하였던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동학의 기본조직에 대하여 살펴보자.

동학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접(接)이었다. 접이 처음으로 조직된 것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 시기였다. 수운 최제우는 1862년 동학의 교세가 크게 늘어나자 지역별로 접을 조직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慶州에 李乃謙 白士吉 姜元甫, 盈德에 吳明哲, 寧海에 朴夏善, 大邱 淸道 兼 京畿에

44) 『해월선생문집』, 계사년조.

45) 신영우, 「1894년 금산 봉기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검토」, 제5회 금산 동학혁명 학술발표회 발표문, 2008, 28쪽.

46) 『취어』 1893년 3월 20일자;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2쪽.

47) 성주현,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321쪽.

金周瑞, 淸河에 李敏淳, 延日에 金伊瑞, 安東에 李武中, 丹陽에 閔士燁, 英陽에 黃在民, 新寧에 河致旭, 固城에 成漢瑞, 蔚山에 徐君孝, 長鬐에 崔義仲 諸人이라.⁴⁸⁾

이 시기 동학조직인 접은 주로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다. 이후 해월 최시형 시기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접이 조직되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로 조직된 접을 통해 공주, 삼례, 광화문, 그리고 보은에서 신원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특히 보은 신원운동에 참여한 조직들은 지역의 명창을 따서 ‘수의’, ‘진의’, ‘광의’, ‘금의’ 등으로 편의상 접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학혁명의 전제적 기반으로 접이 조직된 것은 1893년 3월 보은신원운동 때였다. 전국에서 동학교인들이 보은으로 집결하자 동학교단은 새로운 체제로서 대접(大接) 즉 포(包)를 조직하였다.⁴⁹⁾ 이로써 동학조직은 접과 포로 체계화되었다. 접은 동학의 단위조직으로 대략 10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접의 구성은 전교인과 수교인의 관계로 형성되었으며, 이를 연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접은 지역단위별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 관계를 통해서 조직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이동이나 이주가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로 지역별로 접이 조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접에는 접주(接主)가 대표하였다. 연원 내에 접이 여러 개 늘어나자 연원을 대표하는 접주를 큰접주라 불렀다. 이를 대접주(大接主)라 하였다. 대접주는 1893년 3월 보은신원운동 때 임명되었는데, 금산지역의 연원주인 서장옥은 서호포대접주 또는 경강포대접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동학혁명 당시 서장옥은 구금상태였기 때문에 조재벽이 실질적인 연원주으로써 대접주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학혁명 당시 금산지역에는 동학조직으로서 접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기포 과정에서 주요 인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학혁명 당시 그나마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경우 대부분 접주였을 가능성이 많다. 각 지역에서 활동한 주요 인물은 관이나 일본측, 그리고 동학교단측 등 자료를 통해 금산지역의 접주급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 진기서, 최학연, 정지홍, 최고금, 이광의, 이광우, 이시열, 조한봉, 김재순, 진수환, 강태중, 전판동, 김석순

금산동도작요내력 : 권옥(권전주), 김순익, 심현식, 김정만, 이봉석, 백학선, 이선달, 진기서, 정유술

금산피화효상별구성책 : 김기조, 조동현

금산군지 : 이야면

48)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종리원, 1934, 42면.

49) 표영삼, 『동학』 2, 303-304쪽. 그러나 포의 조직은 1890년 이전에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월 최시형이 1890년 11월 초 내척과 내수도문을 반포할 때 각포에 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보면 포 조직은 1893년 보은 신원운동 때보다 앞섰다고 봐야 한다.

천도교회사초고 : 박능철, 조재벽, 최사문, 최공우

김낙철역사 : 김기운, 박공하, 박희평, 최병조, 조재벽

의산유고 : 박종만, 박홍근 형제, 최사문, 최공우, 고판광, 김태경, 송인업, 김공진, 김치삼, 장문화, 정옥남, 박중집, 이흥기, 김치선, 양양옥, 김세마

토비대략 : 정윤서

선봉진정등록 : 서도필, 박만호, 이만실, 조윤삼, 박치팔, 김윤일

천도교창건사 : 조경중, 최사문, 최공우, 박능철

이상의 기록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기록에 따라 직책이 다양하였다. 이야면과 권옥, 김순익, 심현식, 김정만, 이봉석, 백학선, 이선달, 진기서, 정유술 등은 제원기포를 주도하였고, 진기서는 금산과 용담을 점령할 때 ‘가장 폭행이 많은 자’⁵⁰⁾ 또는 ‘접주’⁵¹⁾라고 평하고 있다. 또한 김재순과 진수환은 접주였다.⁵²⁾ 그리고 금산피화록에 나오는 김기조와 조동현은 집강소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박홍근은 접주, 박종만은 ‘삼남의 비류도대장’으로 표현하고 있다.⁵³⁾ 뿐만 아니라 동학교단측의 기록에서 보이는 조경중, 최사문, 최공우, 박능철 역시 접주급 이상이었다. 이외에도 정윤서 등도 주모자급으로 평가하고 있다.⁵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적어도 접주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금산지역에는 접주가 적어도 20여 명이 넘었다고 본다. 이외에도 육임을 맡았던 인물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 역시 접주 이상이었을 것으로 본다.⁵⁵⁾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산지역의 접은 최소한 20개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원기포시 5천여 명이 참가하였다고 할 때 접은 많게 본다면 50여 개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50여 개의 접은 좀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접의 최소단위는 100명이었지만 큰 접의 경우 1천여 명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접 조직은 동학혁명에서 금산과 진산, 용담을 점령하였고, 황토현전투 등에 참가하면서 동학혁명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금산지역 동학군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자.

금산지역 동학군의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원기포이다. 제원기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장기포보다 10여 일이나 빨랐다. 1894년 3월 8일 이야면을 선봉장으로 금산관아를 점령하였다. 제원기포 이후 금산지역의 동학군(이하 금산동학군)은 활동은 아래 <표 1>과 같다.

50) 「東學黨 騷亂原因 調査結果 報告書 送付의 件」,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25쪽.

51) 「東學黨 騷亂原因 調査結果 報告書 送付의 件」,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32쪽. 이 책에 의하면, 진기서의 집은 매우 부호로 보였으며, 가옥 구조도 마치 일본의 다실과 같아 민가로서는 최상의 구조라고 하였다.

52) 「대둔산부군 전투상보」,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73쪽.

53) 『의산유고』;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180쪽 및 153쪽.

54) 『토비대략』;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1, 473쪽.

55) 이외에도 금산지역의 활동한 동학군에 대해서는 신순철, 「금산 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연구」, 제5회 금산동학혁명학술발표회, 2006을 참조할 것.

<표 1> 제원기포 이후 동학교인의 동향⁵⁶⁾

일시	거점지	주요활동
3월 7일	동도소	동학교인들 동도소 설치하고 제원역에 모이라는 통문 발송
3월 8일	제원역	제원역에 동학교인 집결, 기포
3월 9일	제원역, 제원장	고을장터(제원시장)에 진을 치고 도소 설치 및 유숙, 촌민 합류
3월 10일	제원장, 관아	동학교인임을 알리는 방을 붙임, 삼정과 관련된 문서 요구, 공형 납치, 문서 조서
3월 11일	제원역	제원역으로 돌아감
3월 12일	관아, 금산천	폐정개혁 10개조가 담긴 소장 제출, 금산천변에 진을 치고 동학 주문 외음, 호장 김원택 및 보부상 반수 김치홍의 집을 파괴, 보부상 접장 임한석 부부 구타
3월 13일	금산천, 제원역	폐정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산, 동학교인과 촌민의 불화, 제원역에 재집결

금산관아를 점령한 금산동학군은 폐정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용담현으로 진출하였다. 용담현령 오정선이 동학군을 토벌하려고 하였지만 동학군의 세력에 밀려 용담관아를 동학군에 넘겨주었다. 일시 관망하던 금산동학군은 전봉준, 손화중 등이 무장에서 기포하자 이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4월 1일 방축에서 재기포하였다. 즉 방축기포였다. 방축기포 직후 금산의 보부상과 의회군의 급습을 받고 1백여 명의 희생되었으나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부안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금산동학군은 호남 동학군의 연합전선의 일원으로 부안 성황산-고부 천태산을 거쳐 황토현전투에 참여하였다. 황토현전투에서는 보부상을 격파하는 등 전과를 올렸다. 이후 금산동학군은 연합동학군의 일원으로 정읍-홍덕-고창-무장-영광-함평을 차례로 점령한 후 장성 황룡촌전투에 참여하였다. 이어 정읍-태인-금구-원평을 거쳐 전주성 점령에도 참가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 그리고 전주화약 이후 각지에 집강소가 설치됨에 따라 귀향하여 금산과 용담에 각각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단행하는 등 민정을 실시하였다.⁵⁷⁾

9월 13일 삼례기포와 18일 청산기포로 각지의 동학군이 총기포를 하자 금산동학군은 2차 기포를 준비하였다. 또한 동학군 진압군으로 일본군과 경병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금산지역 보수세력들은 민보군을 조직하였다. 9월 28일과 29일에 정두섭을 소모관, 정지환을 군관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다. 또한 전 참판 정숙조, 길기순, 신준호, 박승호, 고제학, 박제군, 박연수, 박승숙, 김진용, 엄채영 등은 창의군을 조직하였다.⁵⁸⁾

이와 같이 금산지역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금산동학군도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민보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10월 15일을 전후하여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끄

56) 성주현,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326-327쪽.

57) 이에 대해서는 성주현, 「금산지역의 제1차 동학혁명의 전개」,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을 참조할 것.

58) 『금산군지』; 표영삼, 「1894년의 금산지역 동학혁명」, 24쪽.

는 동학군이 논산에서 합류하고 공주를 공격하자 금산동학군은 진산에서 기포하였다. 금산동학군과 민보군의 첫 전투는 10월 22일 부수암에서 시작되었다. 『검암유고』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0월에 이르러 진산의 小吏가 정지환에게 편지를 보내 전하기를 “적 수백 명이 부수암에 출몰하였는데, 급습하면 섬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정지환이 편지를 보고 府君(고제학)에게 출전하기를 청하였다. 부군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는 처음으로 모집하여 병사의 일을 잘 알지 못하므로 굳게 지키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다시 관에 청하니, 관에서 말하기를 “조정에서 관리를 보낸 명령이 있는데, 어찌 성만 지키단 말이오.” 하니, 부군이 정지환을 막지 못하였고 부득이 군사를 출정시켰다. 군사들이 부수암에 이르니, 사면 산 정상에 동학군의 깃발이 뿔뿔이 서 있었다. 수만 병사(동학군)가 산을 내려오면서 고함치며 아군(민보군)을 겹겹이 포위하였다. 아군은 패배하였고 적은 승세를 타고 성을 함락하였다. 정두섭 정지환은 함께 싸웠으며 군졸의 사상자가 1백여 명이 넘었다. 나머지는 鳥獸처럼 흩어졌다.⁵⁹⁾

금산동학군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민보군을 상대로 부수암전투에서 크게 이겼다. 승세를 탄 금산동학군은 금산읍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금성산, 삼치, 민치에서 민보군과 대치하였다. 이곳에서 금산동학군과 민보군은 10월 24일 오전까지 공방전을 가졌다.⁶⁰⁾

그 결과 민보군의 군관 정지환 부자를 비롯하여 정두섭 등 60여 명이 희생되었다.⁶¹⁾ 그러나 금산동학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⁶²⁾ 부수암을 비롯하여 금성산전투에서 승리한 금산동학군은 관아와 향교, 보수세력의 집들을 소각하고 금산일대를 장악하였다. 이로써 금산지역은 동학군의 해방구가 되었다. 『금산피화효상별구성책』에 의하면, 영동, 옥천, 무주 등지의 동학군이 차례로 들어왔다. (중략) 그밖에 개남포, 연산포, 공주포, 강경포 등도 들어왔다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였다 “하고 하였다.”⁶³⁾

이후 금산동학군은 김개남 포와 함께 잠시 동안 활동하였다. 동학군이 2차 기포할 당시 김개남은 남원에 머물고 있었다. 1894년 10월 13일 남원을 출발하여 10월 16일 전주에 도착한 김개남은 청주를 공격하기 위해 다시 북상하였다. 북상하는 과정에 김개남은 금산을 공략하였다. 김개남 포가 금산에 도착한 것은 10월 24일 금산동학군이 금산을 점령한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⁴⁾ 김개남 포(동학군)가 북상하면서 10월 25

59) 고제학, 『검암유고』, 부록; 이병규, 「금산 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135쪽 재인용.

60) 「금산피화효상별구성책」;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7, 478쪽.

61) 「금산의병순의비」;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78-279쪽.

62) 「금산의병순의비」;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81쪽 및 284쪽.

63) 「금산피화효상별구성책」;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7, 478쪽.

64) 왜냐하면 금산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부수암전투와 금성산, 삼치, 민치 등의 전투 상황을 기록한 「금산의병순의비」, 「금산 피화효상별구성책」, 『검암유고』 등에 김개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김개남은 금산동학군이 금산

일경 금산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금산동학군이 금산 관아를 점령한 상태였다. 금산에 이른 김개남 포과 금산동학군은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이후 김개남 포과 금산동학군은 11월 8일 용담현을 공략하였다. 용담현령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뜻하지 않게 지난달(11월-필자주) 초 8일에 진안, 고산, 진산, 금산 등지의 각포 동학군 수만여 명이 북쪽으로부터 침입하여 부대를 마주하고 접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접주 이웅백 삼부자는 동학군 수천 명을 이끌고 동으로부터 느닷없이 침입하여 우리 뒤편을 공격하였습니다. 양쪽 길의 동학군의 형세가 모두 팽창하여 막아낼 수가 없어 초 9일 오시경에 마침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⁶⁵⁾

용담전투는 금산동학군 뿐만 아니라 김개남포, 이웅백 동학군 이외에도 고산과 진안의 동학군이 참여하였다. 완강하게 대응하던 용담현은 전투를 전개한 지 하루 만에 동학군에 점령되었다. 용담현을 점령한 김개남포는 바로 청주로 북상하기 위해 곧바로 진잠으로 향하였다. 진잠 공형의 보고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현에 현감이 아직 부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도 김개남의 포 5천여 명이 금산 등지에서 이달 초 10일 신시에 본읍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공해의 문호 및 각청의 등록된 문부와 상고할 만한 자문(영수증-필자주) 등을 모두 파쇄하고 방화하는 한편, 창고의 자물쇠를 부숴 열고 환곡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내 집들의 물품을 파쇄하거나 빼앗고 유형소의 공형 및 읍의 이속들을 주뢰를 들고 때려서 거의 사경에 이르러서 공문을 보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날 11일 오시경에 회덕의 신탄진으로 떠나면서 장차 청주로 향할 것이라 운운했지만 정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⁶⁶⁾

김개남 포가 떠난 후 금산에는 일본군과 경병이 들어왔다. 동학군을 초멸하기 위해 파병된 일본군은 관군을 지휘하면서 남하하였다. 일본군과 관군이 금산에 들어온 것은 11월 9일이었다. 일본군과 관군이 금산에 진출하자 금산지역의 민보군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금산지역은 금산동학군과 일본군, 관군, 민보군의 연합부대와 대립하게 되었다. 이후 전개된 금산동학군과 금산동학군과 일본군, 관군, 민보군의 연합부대와 전개된 전투 상황은 다음과 같다.

초 10일에 금산읍에 도착하였더니, 저들 무리(동학군) 수만 명이 읍 안의 산 아래, 산위에 포진하여 동학군의 형세가 자못 괴이한 바, 한 바탕 혼전하여 50여 명을 사살하였다.⁶⁷⁾

관아를 점령한 이후에 도착한 것으로 더 확실하다고 본다. 이에 비해 이병규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개된 동학군과 민보군의 전투에서 김개남과 금산동학군의 연합전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이병규, 「금산 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133-141쪽 참조)

65)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 353-354쪽.

66)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 170-171쪽; 「순부사정보첩」,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348-349쪽.

이달 12일에 금산읍에 도착하였으며, 그 다음날 13일에 일본 대대장 미나미 쇼지로(南小四郎)는 주력부대를 이끌고 진산으로 향하였다. 교도소 병사는 일본군 중위 히라기 조다로(白木城太郎)와 함께 행군하여 14일에 용담 위의 조림장터에 도착하여 몇 천인지 알 수 없는 저들 동학군과 접전하여 30여 명을 사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포한 동학군 20명 가운데 서도필, 박만호, 이만실, 조윤삼, 박치팔, 김윤일 등 6명은 소란을 많이 일으켜 몹시 망측하였기 때문에 모두 총살하고 나머지는 타일러서 풀어주었습니다.⁶⁸⁾

위의 보고에 의하면, 금산지역에서 두 차례 접전이 있었다. 첫 번째는 금산동학군과 관군, 두 번째는 동학군과 관군·일본군과의 접전이었다. 전투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히기 않고 있지만 동학군이 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안을 장악하고 있던 금산동학군은 11월 10일 교도대와 접전을 하였지만 50명이 희생되었고 결국 성 밖으로 물러났다. 이를 후인 10월 14일에는 진산 조림장터에서 소규모의 전투가 전개되었다. 동학군 30여 명이 희생되고, 20명이 생포되었는데, 이중 주동자 6명을 처형하였다. 이로써 금산은 관군과 민보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후 금산 인근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금산동학군은 다시 일본군과 두 차례 전투가 전개되었다. 11월 8일의梁山村 전투와 11월 9일錦山 전투⁶⁹⁾였다. 이 두 전투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양산전투

1. 枝隊가 12월 2일(음 11월 8일) 청산현에 갔다가 동학군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명령받은 대로 영동현을 향해 전진하려고 용산촌에 다다랐다. 이 마을 주위에 보루를 쌓고 방어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으나 동학군은 없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영동에 도착하였다. 본대로부터 보내온 2개 분대(일본군)가 증가되었다.

2. 3일 영동현감 보고에 따르면, 이 현에서 12기로 떨어진 곳에 있는 양산촌 부근에 동학군이 군집해 있다고 하므로, 그 동학군을 공격하기 위해 4일 오전 11시에 이 마을로 출발하였다.

3. 오후 3시 9분 양산에 도달하여 동학군에게 버림받은 자 1병을 잡아 힐문했더니, 동학군은 금산현과 옥천군 방향으로 퇴각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이 마을에서 숨營하고 금산현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기다렸다.

4. 오후 10시 서쪽(금산현 방향)으로부터 동학군 천명 이상이 마을 보초선을 향하여 습격해왔다. 즉시 대원의 집합을 명령하고 어둠을 타서 동학군이 보초선까지 잠입하도록 하였다. 동학군이 이 마을로부터 약 200미터 앞에 있는 민가에 불을 질러 동학군들

67)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 225-226쪽.

68)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 226쪽.

69) 원래는 금산부근전투이다. 편의상 금산전투라 하였다.

의 소재가 분명해졌다. 그래서 각 대원들에게 급히 사격을 시켰다. 동학군은 이 맹렬한 사격을 겁내 11시 30분 모두 금산현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 피아간 사상자: 일본군 없음, 동학군 전사자 40명, 부상 미상

○ 노획물 : 창 20자루, 회승총 2자루

○ 탄약소비 : 1,152발⁷⁰⁾

◇ 금산전투

1. 양산촌 야간 전투 후, 동학군은 금산현 방향으로 퇴각한 것 같았다.

2. 5일 오전 8시 30분 양산촌을 출발, 금산현을 향해 전진하였다.

3. 오후 3시 10분 금산현에서 약 600미터 떨어진 곳에 당도했을 때 동학군들은 금산현 북단으로부터 빈번히 사격해왔다. 그래서 지대는 즉시 산개 전진하였으나, 동학군은 저항해 올 기력이 없어 고산, 용담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4. 같은 날 오후 5시 패잔한 동학군 5,60명이 금산현 북쪽으로부터 현내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이들 역시 우리 초병의 사격을 받고 곧 용담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5. 지방민의 말에 따르면, 동학군은 진산현, 고산현, 용담현 세 방향으로 분산되었다고 한다.

○ 피아간 사상자 : 일본군 없음, 동학군 전사자 6명, 부상 미상

○ 노획품 : 창 1자루, 화승총 5자루, 동근 총알 약 1관, 말 3마리, 스나이더총 3자루

○ 탄약 소비 : 167발⁷¹⁾

양산전투⁷²⁾는 11월 8일 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전개되었다. 11월 6일 일본군 19대대 3중대의 지대(지대장 白木城太郎)가 청산으로 갔다가 동학군을 보지 못하고 영동에 도착하였다. 영동현으로부터 양산에 동학군 수천여 명이 주둔해있다는 보고를 받고 8일 오전 11시 양산으로 출발하였다. 동학군을 일본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금산과 옥천으로 퇴각하였다. 이때 금산으로 퇴각한 동학군은 금산동학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군은 동학군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양산에 진을 치는 한편 보초진을 설치하였다. 금산으로 퇴각하였던 동학군은 이날 밤 10시 보초선이 있는 곳까지 진출하여 민가에 불을 지르며 공격하였으나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금산으로 퇴각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동학군은 40명이 희생되었다.

양산전투에서 퇴각한 금산동학군은 금산의 북단에 진을 쳤다. 이들은 전날 전투에는 패했지만 일본군이 금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9일 오후 3시 10분에 시작된 전투는 일본군의 반격으로 동학군은 고산과 용담으로 퇴각하였다. 이 전투에서 동학군은 6명이 희생하였고, 화승총 5자루와 스나이더총 3자루를 빼앗겼다.

70) 「문암·양산부군 전투상보」,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246쪽.

71) 「금산부군 전투상보」,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248-249쪽.

72) 양산은 금산 제원역으로부터 8기로 정도 떨어져 있는 면소재지이다.

금산동학군을 격퇴한 일본군은 공주 우금치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진산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금산동학군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여전히 일본군을 괴롭혔다.⁷³⁾

금산을 장악하였던 금산동학군은 일본군과 관군에 밀려 대둔산과 염정골로 근거지를 옮겼다. 금산동학군이 대둔산에 진을 친 것은 양산전투와 금산전투 이후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전투는 11월 초순이었다. 그렇다면 금산동학군은 일본군과 민보군의 추격을 피해 11월 중순에 대둔산으로 피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금산동학군이 웅거한 대둔산은 지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⁷⁴⁾ 천연의 요새에 진을 금산동학군은 50여 명에 이르렀다. 민보군과 공주에서 파견된 관군이 여러 차례 동학군을 토벌하고자 하였지만 실패하였다.⁷⁵⁾

동학혁명 최후의 전투로 알려진 대둔산전투는 1895년 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전개되었다. 武内眞太郎이 이끄는 일본군 3개 분대와 별관 윤지영이 이끄는 관군 30명은 1월 23일 오전 7시 30분 고산을 출발하여 오후 4시 30분 대둔산의 양장면 기동에 도착하였다. 관군이 대포를 쏘았으나 동학군이 있는 곳에 미치지 못하였다. 포 쏘는 것을 중지한 토벌대는 산으로 올라가 동학군을 정찰하였다. 다음날 동학군 토벌이 본격화되었다. 무내진태랑은 새벽 3시 야습을 기도하였지만 바람과 비가 심해 일단 중지하였다. 새벽 5시 일본군 2개 분대를 동학군 배후로 40리를 우회하게 하였고, 오전 6시 30분 무내진태랑은 나머지 일본군 1개 분대와 관군 30명을 이끌고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당시 전투 상황은 다음과 같다.

길이 4m 남짓 되는 사다리를 만들어 겨우 암석을 기어오르고 혹은 나무에 매달려 겨우겨우 賊의 소굴 밑 약 100m까지 당도하였다. 이때 賊이 우리 군대가 온 것을 알고 쌓아 두었던 돌을 떨어뜨리고 큰 나무 토막을 투하하였다. 그 울림소리는 정말 벼락 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 군사는 다행히도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정면 바로 밑에서는 도저히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암석을 포복해서 賊의 왼쪽으로 겨우 산꼭대기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 바위 위에 쌓인 눈이 모두 얼어서 마치 겨울과 같았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눈 감쪽할 사이에 천 길이나 되는 계곡으로 추락할 정도였으므로, 그 위험하기란 이루 말할 길이 없었다. 이때가 오전 9시 15분경 일

73) 「동학군전투약기」,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32쪽. “진산현을 향해 가는 본대는 곳곳에서 소규모의 전투를 했지만 격렬한 적은 만나지 못하였다.”

74) 「양호우선봉일기」, 1985년 1월 26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동학농민혁명자료총서. 동학군이 웅거한 대둔산을 답사한 관군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만 겹으로 첩첩이 쌓인 큰 산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고, 그 중 하나의 산등성이에서 멀리 구름이 솟아오르는데, 그곳이 바로 적도(賊徒)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 길의 층층이 쌓인 가파른 산이라 사면이 절벽으로 싸이고, 남쪽으로 낮은 곳이 있다고는 하나 역시 다섯 길[五丈]쯤 되었습니다. 그곳에 적도들은 잔도[棧]를 걸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발견하고는 잔도를 철거하여 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측 나라의 경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구름과 아지랑이 기운이 자욱이 그곳을 덮고 있어 무릉도원이 어느 곳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는 하늘에 닿아 있고, 한 조각 칼 같은 바위기둥은 끝없이 높이 솟아 있으며, 천천히 갈아놓은 듯한 바위기둥은 우주를 굽어보고 우러러보는 듯하여 별다른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75) 「대둔산부근 전투상보」,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71쪽.

것이다. 그러나 짙은 안개 때문에 아직 賊을 볼 수 없었고 단지 아래쪽에서 까마득한 사람의 말소리만 들렸을 뿐이다.

오전 9시 30분, 배치가 모두 끝났다. 그 배치는 다음과 같다.

韓兵 20명을 敎長 지휘 하에 적의 전방 경사진 왼쪽(약 200m) 高地에 배치하고 나머지 韓兵과 우리군사 1개 분대를 왼쪽 고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앞서 賊의 배후로 우회시켰던 小松 軍曹가 이끄는 支隊가 오전 10시 도착했으므로 이들을 뒤쪽 고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짙은 안개가 개이는 것을 기다렸다. 오전 11시 10분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짙은 안개가 모두 걷히었으므로, 비로소 賊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잠시 후 賊은 要地를 지키기 위해 5~6명이 암굴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전면에 있던 韓兵이 그들을 저격했는데, 총알이 賊의 下肢를 관통하였다. 賊은 불의의 습격을 받아 당황해서 도주, 바위 위에서 늘어뜨린 새끼줄에 매달려 기어올랐고 계속 사격하면서 우리에게 저항하였다. 그래서 세 방향에서 맹렬한 엄호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賊의 소굴은 세 방향이 큰 바위로 뒤덮여 있어서 겨우 지붕만이 보이고 前面은 큰 돌을 쌓아올려 여기에 총구멍을 뚫으며 그 위에도 巨木을 올려놓아 우리 군사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려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이 그 요새가 매우 견고하고 또한 우리들의 사격이 효과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세 방향에서 맹렬한 엄호사격을 가하게 하는 한편, 오후 1시 40분, 小官 스스로 우리 군사 1개 분대와 韓兵 士官 尹摯榮·金光洙를 이끌고 賊 배후의 가파른 언덕을 내려와, 겨우 賊의 소굴 뒤쪽 아래까지 돌진하였다. 그런데 이 어찌 예측이나 했겠는가. 암석이 몇 길이나 담벽 같이 서 있어서 등반할 방도가 없지 않은가. 먼저 갖고 왔던 사다리는 산이 험준하여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중도에서 내버렸다. 그래서 사람 사다리를 만들어서 한 사람씩 올라가게 했으며 15분간을 소비해서 겨우 全分隊員을 등반시켰다. 그런데 賊은 오직 산이 험한 것만 믿고 배후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계속 전면의 韓兵 머리 위에만 맹렬한 사격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 分隊는 전부 올라와 두 번 일제사격을 가하고, 그 불의를 틈타 소리를 지르며 돌격하였다. 그러자 賊徒는 허둥지둥 당황하여, 어떤 자는 천 길이나 되는 계곡으로 뛰어들고 어떤 자는 바위 굴 속에 숨었다. 살아남은 자는 모두 捕縛하려 했는데, 우리의 돌격 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韓兵들이 이들을 모두 죽였으며 겨우 한 어린 소년만을 남겼을 뿐이다. 이 소년에게 賊의 情況을 물었다. 그랬더니 賊 25~26명이 여기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대개는 接主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그 성명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또 賊의 소굴에 28~29세쯤 되는 임신한 부인이 있었는데 총알에 맞아 죽었다. 또 接主 金石醇은 한살쯤 되는 여아를 안고 천 길이나 되는 계곡으로 뛰어들다 암석에 부딪쳐 박살이 나 즉사하였다. 그 참상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오후 2시 賊의 소굴을 모두 함락시키고 그 집도 불태웠다. 天皇陛下 만세를 삼창하고 산을 내려왔다. 이때가 오후 3시였다.⁷⁶⁾

76) 「대둔산부근 전투상보」,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72쪽. 이에 대해 관군측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토벌대의 공격에 동학군은 돌을 굴리며 저항하였으나 25명이 희생되었고, 화승총 50 자루와 화약 약간을 노획물로 남겼다. 대둔산 동학군을 이끌었던 인물은 최사문, 최공우 부자였다. 이들은 진산 출신이었다. 대둔산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최공우⁷⁷⁾는 염정골에서 재기를 도모하였다. 염정골은 대둔산 동학군을 지원하였던 곳이었다. 『의산유고』에 의하면, 염정골 동학군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전략) 마천대 바위소굴(대둔산 동학군-필자주)에 있는 동학군들과 함께 염정동 본토의 동학군들이 서로 도와주는 형세를 이루어서 장차 일어날 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⁷⁸⁾

염정동에 사는 백성은 6,7백 호인데, 산을 전후로 하여 부근에 있는 동은 수천 호나 되었다. 을미년 저월 24일 비류 중에서 교화되지 않은 자는 최사문, 최공우, 양양옥, 박중집, 이흥기, 김치전 등이었다.⁷⁹⁾

염정동의 동학군은 앞서 언급하였던 대둔산 동학군과 맥을 같이 하였다. 염정동의 동학군은 청산에서 동학군이 재기포하면 1천여 명을 모아 호응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보군을 이끄는 문석봉은 염정동의 동학군을 염탐하기 위해 파수군을 보냈으나 오히려 희생되었다. 문석봉은 1월 26일 권도현으로부터 동학군의 동정을 염탐한 후 28일 동학군을 토벌하기로 하였다. 문석봉이 염정동 동학군을 토벌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촌에서부터 염정동까지는 30리로서 산이 험한 길이었다. (중략) 술시쯤에 이수령 20일쯤에 도착하였으며, 산위를 습격하여 파수막 중 7개에서 동학군들을 잡아서 모두 결박하여 막중에 가두었다. (중략) 때는 12시 정각이어서 비록 담이 큰 장사라도 누군들 감히 꼼짝달싹할 수 있으랴. 동학군들 중에서 놀라서 일어나는 자들은 하나한 총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서게 하였으며, 머리를 숙여 들어오게 하여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

“교장 장세복에게 병사 18명을 이끌고 좁은 어귀를 굳게 지키도록 하고, 군관과 일본군 특무조장 다케우치 신타로(武内眞太郎), 전 순무영 별군관 오인경이 나머지 병사와 일본 병사를 거느리고 더위잡아 올라갈 곳을 찾아 병사들에게 바짝 엮드리고 기어오르도록 하여 마치 원숭이가 매달리고 족제비가 오르는 듯이 기어올라 그들이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니, 돌로 된 바닥에는 겨우 7~8명이 다디고 설 정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가 구름 속에서 나와 햇빛이 산을 둘러 비추어 엷드려 그 아래를 내려다 보니 적의 소굴 망대(望臺)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곳곳에 돌로 담을 둘러 쌓았고, 하늘이 만든 바위병풍이 사망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적도들은 우리가 이미 높이 올라와 있는 형편을 알지 못하고 단지 남쪽만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에 서로 연락하여 포를 쏘고 별안간 배후에서 함성을 지르고 포를 쏘아대니, 저들의 형편은 마치 쌓아놓은 계란처럼 위태로웠고, 형세는 궁지에 몰린 개와 같이 죽기로 작정하고 항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세는 이미 궁하고 급해졌으니, 심지어 무기로 치고 돌을 던지며 저항하나 우레와 천둥이 머리 위에 쳐대니, 어찌 기왓조각 하나 돌 하나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소굴을 쓸어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죽인 적이 20명이요, 빼앗은 총이 60자루였는데 총[銃子]은 부수어 버렸습니다. 사로잡은 12세 된 적에게 적의 실제 숫자를 물어본즉, 진치고 있었던 자들은 단지 30여 명이었고, 그 중 10여 명은 이미 도망갔고, 남은 적은 겨우 이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 거피 네 놈은 이미 피살된 자들 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적을 같이 진영 앞으로 압송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양호우선봉일기』, 1985년 1월 26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동학농민혁명자료총서)

77) 오지영, 『동학사』, 256-258쪽.

78) 『의산유고』,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151-152쪽.

79) 『의산유고』,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156쪽.

를 베고 돌이 들어오면 돌을 베었다. 방안의 동학군 16인의 목을 베는 것이 끝나자 남은 무리들을 포박하였으며 투항한 자들은 모두 4백여 명이었다. (하략)⁸⁰⁾

염정골 동학군은 문석봉의 토벌대에 막대한 희생을 내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1894년 3월 8일 제원에서 기포한 이후 1895년 1월 28일 염정골까지 반봉건 반외세의 활동을 전개한 금산동학군은 동학혁명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산동학군은 민보군으로부터 여전히 보복과 탄압으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서장옥과 금산지역의 동학군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금산지역의 동학은 서장옥과 조재벽이 관할이었다. 서장옥은 1887년 동학에 입도하여 금산지역을 포교하였다. 특히 조재벽을 직계로 하는 연원관계는 금산지역의 동학을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금산지역 동학군은 무장기포보다 10여일이나 이른 1894년 3월 8일 첫 기포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둘째, 금산지역 동학군은 연합전선에 적극적이었다. 무장기포에 앞서 제원에서 기포를 한 금산동학군은 금산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 동학군과 늘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호남동학군과의 연합전선을 비롯하여 김개남포, 그리고 용담을 점령할 때는 고산, 진산, 옥천, 무주 등지의 동학군과도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셋째, 금산지역 동학군은 1차기포에서는 연합전선을, 2차 기포에서는 금산지역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제원기포 이후 호남동학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한 금산동학군은 황토현전투, 황룡촌전투, 전주성 점령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방축기포 이후에는 금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넷째, 금산지역 동학군은 민보군과 가장 처절하게 투쟁하였다. 이는 금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제원기포 후 보부상으로 조직된 민보군에게 철저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섯째, 금산지역 동학군은 무엇보다도 동학혁명의 첫 기포와 마지막 항쟁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80) 「의산유고」,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157-158쪽.

일제강점기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1. 머리말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에 금산지역은 충청남도가 아닌 전라북도에 속한 지역이었다. 전라도의 3·1독립만세운동은 전라남도과 북도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라북도의 3·1독립만세운동은 전라남도보다 먼저 일어났을 뿐 아니라 훨씬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전라남도는 전라북도보다는 늦게 일어났던 반면 비교적 평화적인 시위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금산지역이 속했던 전라북도의 3·1독립만세운동은 3월 5일에 군산부(群山府)에서 1천명의 학생과 민중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군산부의 3·1독립만세운동은 90명이 검거되는 큰 운동이었으며, 뒤이어 3월 10일을 전후하여 전주(全州)·임실(任實)·익산(益山)·정읍(井邑) 등에서 대대적인 3·1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리(裡里)를 비롯하여 4월초에 전개된 남원(南原)의 3·1독립만세운동에서는 적지 않은 인원이 순절을 하기까지 하는 등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라남도의 3·1독립만세운동은 3월 10일에 전개된 광주(光州)읍의 3·1독립만세운동을 기점으로 3월 중순쯤에 나주(羅州)·담양(潭陽)·영광(靈光)·장흥(長興)·제주(濟州) 등지에서 부분적으로 전개되었다. 광양(光陽)·장성(長城)·영암(靈岩)·목포(木浦)·해남(海南) 등지의 3·1독립만세운동은 모두 4월초에 일어났으며, 이곳 중 어디에서도 희생자가 발생할 만큼의 격렬한 항쟁은 없었다. 반면 해남군의 우수영(右水營)이나 완도(莞島)군의 고금도에서는 1920년 봄에 다시 학생과 청년들의 궤기로 3·1독립만세운동을 방불케 하는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점도 전라남도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라남북도에서는 3월 상순에서 4월 상순경까지 약 40일 동안 수많은 학생과 청년, 민중이 힘을 모아 민족의 자주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⁸¹⁾

금산지역이 속한 전라북도의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최근무는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전북지방의 학생들이 전개한 3·1학생독립운동과 차별교육반대 항일맹휴, 항일시위를 통한 학생민족운동, 이리농림(裡里農林)의 화랑회(花郎會), 순창농림(淳昌農林)의 화영회(和寧會)와 전주중심으로 벌어진 반전 항일운동을 고찰했다.⁸²⁾ 이 연구는 3·1독립만세운동보다는 학생독립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전주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조망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김남수는 석사학위논

8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629쪽.

82) 최근무, 「전북지방의 일제하 항일학생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79.

문을 통해 전라북도의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함께 전북지역을 중부와 서부, 동부로 나누어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과 규모, 주체세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⁸³⁾ 이 논문을 통해 금산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개괄적인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북지방을 전체적으로 개괄하였기 때문에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의 구체적인 전개양상을 살피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전북지역에 속했던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이 주목을 끌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략하게 다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끝으로 이창건은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 황해와 평안도 지역, 강원과 함경도 지역, 충청과 전라도지역을 각각 나누어 각 지역별로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⁸⁴⁾ 이 연구를 통해 금산지역이 포함된 각 지역별 주도세력에 대한 총체적인 양상이 다루어졌지만, 금산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 정도로 개략적으로 다루어져 있어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을 고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전라도, 혹은 전라북도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되는 정도였을 뿐 단독적인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3·1독립만세운동의 흐름 속에서 금산만의 3·1독립만세운동의 특색을 부각하고 조망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에서 금산지역민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파악 뿐 아니라 금산지역민들의 독립정신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2. 금산 3·1독립만세운동의 전개

1) 전개과정⁸⁵⁾

일제강점기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당시, 전라북도 동부지방에 자리한 남

83) 김남수, 「전북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9.

84) 이창건, 「3·1운동의 지역별 주도세력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85) 정해숙, 「3·1운동과 금산」, 《금산》, 21쪽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금산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을 서술하고 있으나, 이외의 자료들과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개만 한다. “봉대를 감은채 금산에 내려와 만세부를 짓을 주도하였다. 상옥리에 거주하고 있던 김용술(학술이라고도 함)이의 사랑방에서 모여 3월 27일 만세부를 짓을 모의하였다. 당시 금산면서기(지금 읍사무소)였던 김중구를 설득시켜 등사로 독립선언문을 몰래 유인했으며 정해석씨(지금 시장에서 지업을 함)가 삼대독자임을 부릅쓰고 뼈라를 산포하였다. 만세부르던 날이 장날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기회로 중앙국민학교에서 김용술이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닭전터(중앙극장앞쪽)와 쇠전거리로 밀려 가면서 대한독립만세, 일제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경과 헌병보조원(한국사람으로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의 저지를 받았다. 그들은 만세 부르는 사람의 옷에다 먹칠이나 잉크칠을 하여 경찰서에 연행한 후 쉽게 판가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한다. 같이 모의하던 사람 중에 배반자가 있어 일경에게 사전 밀고를 함으로써 실효를 못거두고 쉽게 진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밀고한 자가 누구였던지는 확실치않다) 또한 만세를 부르기로 굳게 약속해 놓고 당일 경찰의 탄압이 심하니까 도피하는 자도 있었다. 낮에 별효과를 못거둔 이들은 밤에 남산과 성황당(지금 장로교회 있는 곳), 농고 뒷산에 올라 횃불을 들고 외쳤다. 남산, 성황당 쪽은 김용술, 김중구가 맡고 농고 쪽은 임성환, 만자강(지금 근산중학교있는 곳)은 정해숙, 금성면쪽은 구호열이 맡아 횃불을 놓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후 주모자로 임성환, 김용수, 구호열, 변희익, 김중구 등이 포속되어 각기 8~12개월의 연도를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그뒤 김용술이는 동경에 유학하여 유학생회장으로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상해임시정부요인으로 있던 정해만(금산인)과 상호 연락하여 암암리에 물심양면으로 지하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경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아 동경경시청 신전경찰에 29일간 포속되고 불경선인으로 주목받아왔다. 그후 명치대를 중퇴하고 고향에 와있었으나 가는 곳마다 일경이 따라다니는 형평이라 울분의 나날을 보내다가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던 것이다. 금산을 이외에 진산면과 복수면에서도 맹렬한 만세사건이 있었던 모양이나 조직적 반향이 아니었고 제원에서도 있었으나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 장수, 무주, 금산 등지는 험한 산악지대라는 지세의 이점을 이용하여 항일의병전이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였다. 따라서 ‘남한대토벌전’ 이래로 많은 우국지사가 살상, 체포되었던 관계로 남원을 제외한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시위운동이 없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금산군은 임진왜란때 7백 의사들의 순절지로서 항일의식이 강했던 지역이라는 점도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⁸⁶⁾

금산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은 3월 하순경부터 시작되었다. 독립신문은 3월 20일에 금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⁸⁷⁾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하면 금산의 독립만세운동은 3월 23일에 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전라북도의 3·1독립만세운동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금산지역도 상대적으로 격렬하고 지구적으로 3·1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금산면에 거주하고 있던 김용술(金用述)과 임승환(任勝煥)은 여러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던 3·1독립만세운동과 연계하여 금산군에서도 대대적인 시위운동을 전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⁸⁸⁾ 김용술과 임승환이 여러 지방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 소식을 접한 것은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초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의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양봉식(梁鳳植)은 1919년 2월에 진남포를 경유하여 귀국한 민족대표의 한사람이었던 정춘수(鄭春洙)로부터 독립선언서 수십장을 받아 고향에 돌아왔다. 그는 고향 부근인 영동에서 동지들을 규합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에서 받아온 독립선언서를 옥천(沃川)과 이원(李院)의 인접지인 무주(茂朱)와 금산(鎭山) 등지에 배포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⁸⁹⁾ 즉, 김용술과 임승환이 이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양봉식을 비롯한 영암민들에 의하여 2월 말경에 독립선언서가 금산지역에도 배포되었다고 파악된다.

또한 임승환은 금산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기 이전에 이미 서울의 파고다공원의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임승환은 중동중학교에 재학중이었기 때문에 학생복 차림으로 이날의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헌병이 휘두르는 칼에 머리를 맞아 진고개 거리에 쓰러졌다. 그는 얼마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을 찾은 직후 상처를 두 손으로 부둥켜 안고 종로 병원으로 뛰어가서 3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임승환은 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고향인 금산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고향에서 3·1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 고향집으로 돌아온 임승환은 낮에는 집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밤에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밤마다 동지들을 규합하는데 노력했다. 당시 금산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지들을 규합하는 것은 용이했다.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정된 전날인 3월 22일에 상옥리(上玉里)에 위치한 김용술의 집에서 각 면

86) 김남수, 「전북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9, 52쪽.

87) 「獨立運動日誌(六)」, 『독립신문』 1919년 9월 13일자.

8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50쪽.

8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93~94쪽.

의 대표 20여명이 다같이 모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애초의 계획은 금산읍 금산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장을 거쳐 장꾼들과 합세하여 시위운동으로 시가지를 돌아 헌병대까지 돌진하기로 계획되었다. 시간은 장꾼들이 집에 돌아가기 전으로 결정이 되었고, 헌병들의 경계가 극심하기 때문에 주모자들은 장꾼으로 가장하고 상호 연락하며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⁹⁰⁾ 또한 그날 김용술과 임승환은 김용술의 집에서 아래와 같은 격문을 작성하였다. 이 격문은 당시 금산면 면서기로 근무하던 김종구(金鍾九)가 면사무소의 등사판으로 절반크기의 종이에 150여 장을 인쇄하였다.⁹¹⁾

금산경고(錦山警告)⁹²⁾

방금 세계 강국은 단체적·일진적(一進的) 행동으로 인하여 성립된다. 아 조선은 건국 4천여 년으로, 문명의 자격과 인의(仁義)의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제 정치하에서 신고(辛苦)하는 것은, 안일 우매의 사상과 매국적자(賣國賊子)의 소치인 것이다. 동포 청년은 간교한 적자의 행동을 배우지 말고 인도(人道)를 주창하여 압박정치하에서의 금수생활(禽獸生活)을 면하고 독립적 자유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정신을 가진 동포는 본일 오후 2시 우시장(牛市場) 상부에 집합하여 주동 인물과 행동을 함께 할 것이다.

금산 청년 대표자

주동 인물 김용술

임승환

이들이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한 3월 23일(음 2월 22일)은 금산읍 장날로서, 장날을 이용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드디어 3월 23일 아침, 구호열(具浩烈)과 변희조(卞熺朝) 등은 시장으로 몰려드는 정필종(鄭必鍾)·김태석(金泰碩)·김일찬(金日贊) 및 장꾼들에게 전날 인쇄한 ‘금산경고’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격문에 표시된 시간인 오후 2시경에는 김용술과 임승환이 20여 명의 청년과 함께 지정된 장소인 우시장 상부에 나타나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선동했다. 이 소리에 주위에 있던 수천명의 군중이 호응하기 시작하면서 금산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이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⁹³⁾ 이 소식을 접한 금산읍 헌병분대가 시장으로 긴급히 출동하였고, 김용술을 비롯한 몇몇 주동 청년들은

90) 금산군지편찬위원회, 『금산군지』, 1987, 215쪽~216쪽; 정해숙, 「3.1운동과 금산」, 《금산》, 21쪽.

9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50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권, 1971, 1514쪽.

9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권, 1971, 1514쪽에 기재된 금산경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야흐로 세계열강은 각각 적극적인 행동으로 성립하고 있다. 아 조선은 건국 4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문명의 자격과 인의(仁義)의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강제정치에 온갖 신산고초를 맞보고 있는 연유는 무사안일을 탐하고 우매한 사상과 매국적자(賣國賊子)가 발호함에 있으니 동포 청년은 이들 간교한 적자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인도를 주창하여 압박정치하의 금수생활을 모면코 독립적 자유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 동포는 오늘 하오 2시 반 장터로 나와 함께 행동하자’

9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50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권, 1971, 1514쪽.

그 자리에서 체포되면서 몰려 있던 군중들은 일시에 해산하였다.⁹⁴⁾ 그러나 일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포를 쏘며 몽둥이를 휘둘러 군중들을 짓밟았으나 주민들은 쉽게 해산하지 않았고, 일제는 주모자인 전위부대에 잉크를 뿌려 표식을 삼을 계획까지 하였다. 결국 오후 8시경에는 구시장통 싸전 근처에서 20여명이 체포당하고 임승환도 일제의 손에 붙잡혔다. 헌병이 임승환의 두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임승환은 “내가 죄인이나”며 호통을 치면서 직접 자기 발로 가겠다고 앞장섰다.⁹⁵⁾ 이날의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수천명이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⁹⁶⁾

그러나 금산읍장터에서의 3·1독립만세운동은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같은 날 밤 10시경에 또다시 일어났다. 금산읍내에 위치한 남산 밑에서 김일남(金一南)을 포함한 30여 명이 선두에서 두 손을 들고 “대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며 읍내를 향해 행진하였던 것이다. 조용한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뛰어나와 호응하며 3·1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하였다. 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듣고 출동한 일본헌병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그러나 금산군의 3·1독립만세운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하루를 건너 25일에는 금산읍의 동쪽에 위치한 제원면(濟原面) 제원리(濟原里)에서 만세시위가 또다시 전개되었다. 제원리에 살고 있던 청년 박영규(朴英圭)는 미리부터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23일에 전개된 금산읍 장터의 3·1독립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결심을 확고하게 굳혔다.⁹⁷⁾ 그리하여 25일 저녁에 본인의 집에서 한지에 태극을 그려 넣고 양쪽에 한자와 국문으로 ‘한국독립 만만세’라는 글귀를 쓴 태극기와 유사한 깃발을 만들어 수숫대에 매달았다. 그리고 동네 중앙에 매달아 놓은 종과 북을 때내어 두드리면서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박영규는 이렇게 모인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돌면서 만세를 부르짖기 시작하였고, 만세소리를 들은 주민 2백여 명과 박영규는 만세를 부르며 마을을 돌고 또 돌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경에 박영규는 또다시 도로 부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을 주민들을 마을 앞길에서 기다렸다가,

“지금 한국은 독립하게 되었으니 일동은 다같이 독립만세를 부르자.”

라고 말하면서 먼저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박영규의 말에 호응하여 주민들도 또다시 만세를 불렀다. 박영규의 만세행진은 그날 밤에도 몇몇의 청년들과 함께 마을 앞길을 행진하며 계속되었지만, 금산 헌병분대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헌병대에게 전혀 굽히지 않고 외려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⁹⁸⁾

3월 23일 금산읍장을 이용해 진행되었던 만세운동은 다음 장날인 3월 28일(음 2월 27

9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51쪽.

95) 금산군지편찬위원회, 『금산군지』, 1987, 216쪽.

96) 『매일신보』 1919년 3월 24일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50쪽.

9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51쪽.

9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권, 1971, 1513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51쪽.

일)에도 또다시 일어났다. 28일 금산읍장에는 23일에 있었던 3·1독립만세운동을 한차례 겪은 헌병들이 이른 아침부터 경계를 했다. 더욱이 이날은 군수 및 친일 관리 인사들까지 동원되어 주민들의 행동을 감시하였다. 별다른 움직임없이 오후 6시쯤 상점들은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노점과 행상인들도 짐을 싸기 시작하자 일제도 안심하는 듯했다.⁹⁹⁾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려는 것처럼 서성대던 수백 명의 군중들이 갑자기 태극기를 휘날리고 만세를 부르며 질서 정연하게 행진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 저기에 모여 서있던 민중들도 따라 나서기 시작하면서 인원은 점점 증가되었다. 선언서와 격려문도 배포되었다. 당황한 헌병대는 공포를 발사하며 군중들의 해산을 요구했지만 만세행진의 대열은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질서정연하게 시가지로 행진했다. 너무도 질서정연한 군중들의 행동 때문에 일본 헌병대도 감히 용기를 내어 대들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밤 10시경에는 다시 서대산(西臺山)에서 봉화가 오르면서 읍내를 비롯하여 금산군내의 각 마을에서 만세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위낙 늦은 밤이기도 했고 금산군의 각 마을 마을마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헌병들은 여기 저기 방황하느라 제지하지 못하다가, 이튿날이 되어서야 금산면의 김현재(金現在), 한철중(韓喆宗), 김봉준(金奉俊), 정해준(鄭海駿) 등 20여 명을 구속하였다.

23일에 있었던 장날만세운동과 서대산만세사건이 일어난지 8일만인 3월 31일에는 또다시 복수면(福壽面) 곡남리(谷南里)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곡남리에 거주하고 있던 김영호(金永浩)와 정재철(鄭在轍), 오연구(吳然九) 등이 곡남리 앞길에서 오후 2시경 인근 주민들과 함께 도로를 수리하면서 주민들에게 각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세운동에 대해서 설명했다. 정재철은 주민들에게 “우리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의를 했다. 그리고 곧바로 대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며 앞장섰고, 함께 도로 수리 공사를 하고 있던 수영리(壽永里)의 주민 약 2백명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복수면의 3·1독립만세운동은 시작되었다. 곡남리에 살고 있던 유영준(兪英濬) 등은 미리 준비했던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마침 이때 도로 공사를 감독하러 나왔던 헌병들이 이들을 제지하려고 나섰지만, 김영호와 오연구 등은 이를 묵살하고 계속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의 대열을 지휘하면서 만세행렬은 더욱 커졌다. 곧이어 진산면(珍山面) 헌병주재소에서 응원대가 급하게 파견되어 일시적으로 만세시위가 진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김영호 등은 문서를 만들어 백암리(白岩里) 구장 등에게 전달하였고, 뿐만 아니라 낮에 체포된 사람들을 구출해야 한다며 주민들을 선동하여 그날 밤 11시경에 2백여 명이 다시 소리 높여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며 대열을 형성하여 진산면(珍山面) 읍내로 향하며 행진하였다. 만세소리가 한밤중에 산천을 진동시키는 장면은 감격적이었다.¹⁰⁰⁾ 결국 진산 헌병주재소 헌병의 출동으로 군중은 해산되었고 김영호와 정재철

9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51쪽.

10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52쪽.

등 7명이 구속당하였다. 그러나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늦은 밤을 이용하여 산위에서 산발적으로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¹⁰¹⁾ 이러한 산 위에서의 횃불 만세시위로 하홍학(河洪學)은 피살되었고, 한철중(韓喆宗), 김현재(金現在)는 전주 감옥에서 옥사하였다¹⁰²⁾는 기록이 있으나, 3월 31일의 곡남리의 3·1독립만세운동 이후의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고흥군의 3·1독립만세운동과 무주군의 3·1독립만세운동을 통해서 3월 이후의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의 대강을 짐작할 수는 있다. 고흥군의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몇몇 인사들은 인근한 지역의 만세운동과 호응하여 3·1독립만세운동을 의논하기로 합의하였다. 오석주(吳錫柱)는 금산면(錦山面) 지역의 신도들과 연락하여 4월 14일에 예정된 날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고 실행에 옮겼다. 오석주는 한익수(韓益[翊]洙), 황보익(黃保翌), 황재연(黃在淵) 등을 만나 이러한 계획에 찬동을 얻었고, 한익수에게 선언서를 작성하게 하여 조선독립 고흥단(高興團) 명의를 붙이게 하였다. 고흥의 3·1독립만세운동은 14일 이전에 이미 일부에서 읍내에서 만세운동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퍼져 일제를 긴장시켰고, 실제 금산면의 오석주 등은 13일에 이미 읍내로 들어가 유숙하며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예정일인 4월 14일 아침부터 비가 내려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되는 바람에 3·1독립만세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고흥군의 3·1독립만세운동을 전후하여 금산에서는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산발적인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또한 금산면의 금산도 해상 등 몇 곳에서는 어선(漁船)에 태극기를 올리고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¹⁰³⁾

고흥군 뿐 아니라 무주의 3·1독립만세운동을 통해서도 금산군민들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무주군의 3·1독립만세운동은 4월 13일 무주읍 장날을 기하여 일어났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산간벽지 무주군의 독립운동은 다시 흠치교(訐嗤敎)·공도회(公道會) 등의 유사종교단체를 통하여 확산되기도 하였다. 특히나 1920년대에 무주읍내의 이두현(李杜鉉)이 무주와 금산을 돌면서,

“공도회는 우리민족의 정신·사상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니 국민은 모두 공도회에 가입하여 민족의 통일 독립을 가져와야 한다.”

고 선전하면서 민중을 결속시켰다.¹⁰⁴⁾

이처럼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3월 23일 금산읍장터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같은 날 밤 10시에 금산읍내 남산 밑, 25일 제원면 제원리에서, 26일 제원리에서 오후와 밤을 이용하여, 28일 또다시 금산읍 장날을 이용해서, 같은 날 밤 10시경 서대산에서, 또한 3월 31일 복수면 곡남리에서, 같은 날 밤 11시경 진산읍

10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53쪽.

102) 김남수, 「전북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9, 56쪽.

10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98~600쪽.

10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48~549쪽.

내를 향한 만세행진으로 전개되었다. 즉, 3월 23일에서 3월 31일 9일동안 8차례에 걸쳐서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 이후에도 금산군과 인접하고 있던 고흥과 무주의 주민들과 연계하여 혹은 영향을 받아 3월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산발적으로 3·1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주도인물과 일제의 탄압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3월 23일 금산읍장터와 남산 밑의 만세운동, 3월 25일과 26일 제원면 제원리의 만세운동, 3월 28일 금산읍장터와 서대산의 만세운동, 3월 31일 복수면 곡남리와 진산읍내의 만세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8번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주도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3월 23일 금산읍장터와 남산 밑의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은 김학술, 임승환, 구호열, 변희조, 김일남 등이다. 먼저 김학술(金學述, 이명 金用述)은 금산면 상옥리에서 1897년 11월 14일(당시 22세)에 출생한 인물이다. 그는 3월 22일 금산읍내에서 임승환과 함께 3·1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섰고, ‘금산경고’라는 격문을 제작하여 군중들에게 배포하는 등 금산읍장터의 3·1독립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1년형을 언도받았고, 2009년에 애족장을 추서받았다.¹⁰⁵⁾ 임승환(任勝煥)은 금산면 아인리(衙仁里)에서 출생하여 당시 가장 어린 나이인 20세의 나이로 김용술과 함께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¹⁰⁶⁾ 다음으로 구호열은 금성면(錦城面) 양전리(陽田里) 455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김학술과 임승환과 함께 격문을 시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전개하던 중 붙잡혀 징역 6개월형을 언도받아, 1995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¹⁰⁷⁾ 구호열과 같은 활동으로 같은 형을 언도받은 변희조는 금산면 중도리(中島里) 354번지에서 1895년 11월 2일(당시 24세)에 태어났다. 1919년 당시에는 금성면 도곡리(道谷里)에 거주하였으며, 격문을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제에게 잡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¹⁰⁸⁾ 다음으로 김일남(金一南)은 1888년 7월 21일(당시 31세)에 금산면 중도리 354번지에서 태어나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일남은 23일의 만세운동을 전개한 이유로 체포되어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¹⁰⁹⁾

23일 장터시위운동이 벌어진 이틀 뒤인 3월 25일과 26일 이틀동안 제원면 제원리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주도인물은 박영규이다. 박영규(朴英圭, 이명 朴英圭)는 제원면 제원리에서 출생한 인물로 1919년 3월 25일 당시 23세의 나이로 제원면의 3·1독립만세운

105) 국가보훈처 포상자공적조서(<http://e-gonghun.mpva.go.kr>)

10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권, 1971, 1515쪽.

107) 국가보훈처 포상자공적조서(<http://e-gonghun.mpva.go.kr>)

108) 국가보훈처 포상자공적조서(<http://e-gonghun.mpva.go.kr>)

109) 국가보훈처 포상자공적조서(<http://e-gonghun.mpva.go.kr>)

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대한독립 만세’ 라고 쓴 태극기를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들을 선동하여 만세운동을 벌였다. 또한 이튿날인 26일에는 또다시 주민들을 선동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05년에 애족장을 받았다.¹¹⁰⁾ 아쉽게도 28일에 발생한 금산읍장터와 서대산의 만세운동의 주도자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끝으로 3월 31일 복수면 곡남리와 진산읍내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김종구, 김영호, 오연구, 정재철 등이다. 먼저 김종구(金鍾九)는 금산에서 출생한 인물로 31일의 3·1독립만세운동에 주도자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어 1990년에 애족장에 추서되었다.¹¹¹⁾ 또한 김영호(金永浩, 이명 金永鎬, 金永鎬)는 1881년 2월 17일(당시 38세)에 복수면 수영리(壽永里) 341번지에서 태어난 인물로, 2007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그는 31일 다수의 수영리 주민들과 복수면 곡남리 도로 수리 부역 공사가 벌어지던 중간 휴식시간에 대전에서 벌어진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무되어 솔선하여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에 200여명의 주민들이 호응하여 다함께 독립만세를 연호하면서 진산읍내를 행진하였고, 같은날 밤 ‘복수면 각지에서 만세를 고창할 것’을 권유하는 통문을 돌리는 등의 주도적인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¹¹²⁾ 오연구(吳然九)는 1876년 8월 12일(당시 43세)에 복수면 수영리 404번지에서 태어나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정재철과 함께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태형 90도(度)를 받았다.¹¹³⁾ 끝으로 정재철(鄭在轍)은 1893년 11월 26일(당시 26세)에 복수면 수영리 663번지에서 태어나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그는 31일의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태형 90도를 언도받았다.¹¹⁴⁾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이들 이외에도 금산에서 출생한 인물 중에서 비록 금산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공훈을 인정받은 인물들도 있다. 먼저 김주한(金周漢)은 남면(南面) 마제리(馬堤里)에서 태어났지만, 전북 진안군(鎭安郡) 주천면(朱川面) 주양리(朱陽里)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37세의 나이로 진안군의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인물이다. 김주한은 1919년 4월 3일 오후 4시경,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에 소재한 사립 화동학교(華東學校) 교정에서 화동학교 학생들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을 목격하고 그곳으로 달려가 학생들의 용기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화동학교 학생이었던 양해관(梁海寬)에게 권유장을 쓰게 한 다음, 동네로 돌아와 이 권유장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다함께 다시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날

110) 국가보훈처 포상자공적조서(<http://e-gonghun.mpva.go.kr>)

111) 국가보훈처 포상자공적조서(<http://e-gonghun.mpva.go.kr>)

112) 국가보훈처 포상자공적조서(<http://e-gonghun.mpva.go.kr>)

113) 국가보훈처 포상자공적조서(<http://e-gonghun.mpva.go.kr>)

114) 국가보훈처 포상자공적조서(<http://e-gonghun.mpva.go.kr>)

밤 김주한은 10시경 같은 동네 이노봉(李老奉)의 방 앞의 논에서 주민들 및 학생들 약 60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다. 결국 이러한 활동으로 일제에 의해 체포된 김주한은 법정에서 “나는 대정 8년 4월 3일, 전 시 양해관이 작성한 격문을 부락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진술을 하였고, 양해관 역시 사법경찰관의 신문 조서 가운데 “판시사실과 부합되는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¹⁵⁾

또한 이재선(李在善, 이명 李半玉)은 군북면 보광리에서 1887년 6월 15일에 출생하여 1991년에 애국장에 추서된 인물이다. 그는 1919년 3월 27일 충북 옥천군 이원면(伊院面) 장날에 모인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내를 누볐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헌병들이 허상기(許相基) 등 주동자를 연행하는 것을 보고 시위군중들이 주재소로 몰려가 석방을 요구하자 일본 경찰들이 무자비하게 총을 발포하였다. 이 사고로 이재선의 동생 이일만(李一萬)이 죽자, 이재선은 동생의 시체를 짊어지고 주재소로 가서 항의하며 격렬하게 시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5년을 받았다.¹¹⁶⁾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산에서 태어나서 본인의 고향인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금산에서 태어났지만 본인의 거주지에서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포상을 받은 금산출신 인물은 모두 12명으로 확인된다. 당시 3·1독립만세운동에 주도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나라의 독립을 간절하게 바라며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금산군민들도 대단히 많은 숫자였음이 확인된다. 당시를 기록한 자료에 1919년 3월에 독립선언을 한 인원의 총계(總計)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전라도는 임실(任實) 3천명, 영광(靈光) 7천 6백명, 고창(高敞) 2천명, 정읍(井邑) 1만 8천명, 금산(錦山) 1만 5천명, 무안(務安) 2백명, 목포(木浦) 6만 1천 5백명, 군산(群山) 2만 5천 8백명, 옥구(沃溝) 5천 7백명, 남원(南原) 5만명, 광주(光州) 1만 2천명, 제주(濟州) 4천 4백 50명, 김제(金堤) 2천명, 익산(益山) 5천명, 전주(全州) 5만명으로 확인된다.¹¹⁷⁾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 자료를 통해 금산에서 3월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독립선언을 한 인원이 1만 5천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인원은 전라도를 통털어 목포, 남원과 전주, 군산, 정읍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다. 또한 숫자의 정확을 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1919년 당시 중국 상해에서 집계한 숫자만 보더라도 전라남북도 각 군에서 3월~5월간에 운동을 일으킨 횟수는 222회에, 동원된 연인원이 근 30만 명이라고 한다.¹¹⁸⁾ 따라서 금산군민들의 3·1독립만세운동의 참여는 대한독립을 기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금산군민들의 독립의지를 꺾기 위한 일제의 탄압도 무차별하게 자행되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3·1독립만세운동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자 3월 29일을 기점으로 일제는

11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권, 1971, 1515~1516쪽.

116) 금산군지편찬위원회, 『금산군지』, 1987, 217쪽; 국가보훈처 포상자공적조서(<http://e-gonghun.mpva.go.kr>)

11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6권, 1973, 101~105쪽.

1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625~630쪽.

일본군 수비대를 배치하였고, 각 관청 및 헌병대·수비대 간의 긴밀한 연락 확보, 분대장·주재소장 등의 시국강연을 통하여 만세운동이 불리한 점,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법 및 총독 유고·경고 등을 민중들에게 설득시키는 등의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이 밖에도 그들은 각 기관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운동의 미연 제지 및 확대 방지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특히나 소위 ‘자성회(自省會)’라는 조직을 결성한 것은 간교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성회’란 만세운동의 전개와 함께 일본이 전주에서 일본인들 중 유력 인사들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설한 조직으로, 문자 그대로 자성해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말자는 취지를 담은 조직이었다. 즉, 독립 만세운동에 참가하지 말고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소위 ‘자성회규약’ 중 제3조의 “본회원은 불온행위를 감행하는 자, 또는 불령자(不逞者)를 숙박케 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본부 장관 및 지부장에 밀고할 의무가 있다.”는 규약을 통해 이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¹¹⁹⁾ 물론 금산에도 자성회가 조직되었음이 확인된다.¹²⁰⁾ 또한 일제는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지사들을 구속하였으며, 보안법위반·소요죄 등의 법률조문을 적용하여 극심하게 탄압을 가했다. 1919년 4월 16일에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죄목으로 전라남북도의 각 감옥에 수감된 인원은 근 4백 명에 달하였다.¹²¹⁾ 특히나 금산군 3·1독립만세운동 관련자 중 하홍학(河洪學)은 일제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고, 한철종과 김현재는 전주 감옥에서 옥사하는 등 일제의 탄압은 극악하게 자행되었다.¹²²⁾

3. 맺음말

이상과 같이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3월 23일 금산읍장터와 남산 밑, 25일과 26일 제원면 제원리, 28일 금산읍장터와 서대산, 3월 31일 복수면 곡남리와 진산읍내에서 9일이라는 시간동안 무려 8차례에 걸쳐서 전개되었다.¹²³⁾ 또한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금산군과 인접하고 있던 고흥과 무주의 주민들과 연계하여 혹은 영향을 받아 3월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산발적으로 3·1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의 3·1독립만세운동의 흐름 속에서 금산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1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625~630쪽.

120) 『매일신보』 1919년 5월 21일자.

12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625~630쪽.

1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553쪽.

123) 김남수, 「전북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9, 59쪽에 의하면 김남수 역시 금산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이 7번 전개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표1] 전라북도의 시위 형태별 통계¹²⁴⁾

지역	총회수	단순시위	적극시위	폭력시위	지역	총회수	단순시위	적극시위	폭력시위
임실	17	10	5	2	전주	21	14	4	3
고창	9	6	3		부안	8	4	3	1
정읍	15	10	3	2	무주	7	5	2	
군산	26	18	4	4	순창	11	7	2	2
옥구	7	6	1		장수	8	4	3	1
남원	21	15	3	3	진안	9	3	6	
김제	6	2	3	1	금산	7	4	3	
익산	12	5	5	2	합계	184	113	50	21

이미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모두 8차례 전개되었다. 그러나 [표1]에서 7차례로 파악한 것은 25일과 26일 이틀동안 일어난 제원면의 3·1독립만세운동을 1번으로 파악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남수에 의해 작성된 [표1]을 통해 금산의 7번의 3·1독립만세운동 중 단순시위가 4번, 적극시위가 3번 전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표를 작성한 김남수가 어떤 시위를 단순시위로 정의하고 어떤 시위를 적극시위로 정의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총 184차례의 시위 중 금산에서 일어난 7번의 시위는 6번의 시위가 발생한 김제를 제외하고 옥구, 무주와 함께 시위가 적게 일어난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전부 몇 차례가 발생했느냐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면,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애초의 3·1독립만세운동의 취지였던 평화적인, 즉 폭력적인 시위가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채 7번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3차례가 적극적인 시위의 형태를 띠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표2] 전라북도의 시위 참가 연인원¹²⁵⁾

지역	일제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지역	일제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임실	730	3,000	전주	1,150	50,000
고창	100	2,000	부안	50	5,000
정읍	200	18,000	무주	수십	3,500
군산	1,100	25,800	순창	수십	5,000
옥구	수십	5,700	장수	수십	600?
남원	1,500	50,000	진안	120	500?
김제	60	2,000	금산	수백	1,500
익산	600	5,000	계	약 10,000	약 77,600

[표2]는 전라북도의 3·1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인원을 보여주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약 7만 7천여명으로 확인된다. 그 중 금산의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1,500명으로 전라북도 참여인원수의 2%에 해당된다. 비록 적은 인

124) 김남수, 「전북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9, 60쪽.

125) 김남수, 「전북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9, 61쪽.

원수이기는 했으나, 금산보다는 시위회수가 많았던 장수나 진안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표3] 전라북도내 3·1독립만세운동의 시위장소 통계¹²⁶⁾

지역	동리	시장	관공서 앞	산위	노상, 기타	계
임실	4	3	2	7	1	17
고창	1	3	2	3		9
정읍		3	1	10	1	15
군산	2	2	5	15	2	26
옥구				7		7
남원	3	1	1	15	1	21
익산		3		8	1	12
전주	4	6	2	7	2	21
부안		2		5	1	8
무주	1	1		5		7
순창	2	3	1	4	1	11
장수	1	2	1	3	1	8
진안	2	2	1	3	1	9
김제		2		3	1	6
금산	3	2		2		7
계	23	35	16	97	13	184

다음으로 [표3]을 통해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이 동네에서 3차례, 시장에서 2차례, 산위에서 2차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7차례의 시위 중 금산읍의 장날을 이용하여 2차례가 일어났다는 점과 장터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던 날은 어김없이 같은 날 밤에 산위에서 횃불시위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표4] 전라북도 시위운동 피해상황¹²⁷⁾

지명	일병출동	발포	피해상황		
			사망	상해	피검
임실	2(1)	1(1)	2(4)	수십(50)	145
고창				5(5)	38(25)
정읍	1		(1)	10(20)	87(30)
군산	3(1)	1(1)	다수(21)	(37)	104(145)
옥구			(32)	3(35)	8(50)
남원	2(1)	2(1)	8(34)	10(142)	29(56)
김제	2				14
익산	2(1)	2(1)	10(16)	수십(50)	25(80)

126) 김남수, 「전북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9, 64쪽.

전주	3	2	10	수집(15)	325(434)
부안	1	1		5(42)	21(32)
무주				8(21)	7(18)
순창					12
장수		1			13
진안	1			2	25
금산	4	2		다수	23
계	21(4)	12(4)	약 40(108)	약 100(417)	876(870)

[표4]를 통해, 금산지역은 전라북도에서 거의 가장 적은 횃수의 시위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일병이 출동한 횃수가 4차례로 가장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발포된 횃수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2차례에 해당된다. 이뿐 아니라 시위횃수와 비교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23명이라는 많은 피검자들이 발생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한다. 이는 비록 시위횃수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일제의 탄압은 높은 강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인 것이다. 즉,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일제가 강한 탄압을 가해야만 했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5] 전라북도 각 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 주도층 분포¹²⁸⁾

	전주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익산	군산	김제	고창	남원	장수	진안	무주	금산	계
지식인	6				1		32		3						42(29.17)
종교인			1												1(0.69)
노동자	2						2					1			5(3.47)
농업	13	1	16	1		4		3	1	3	7	7	1	6	63(43.75)
어, 광업															0
자본가	1														1(0.69)
상인	5		1				6								12(8.33)
자영업	5		1				3								9(6.25)
공직															1(0.69)
기타	2		1												3(2.08)
무직	2						1								3(2.08)
미상			2				1		1						4(2.78)
계	36	1	22	1	1	4	45	3	5	3	7	9	1	6	144(99.98)

마지막으로 [표5]는 전라북도 각 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의 주도층을 분석한 표이다. 이 표를 통해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의 주도층은 100% 모두 농업에 종사하였던 것으

127) 김남수, 「전북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9, 69쪽.

128) 이창진, 「3·1운동의 지역별 주도세력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159쪽.

로 확인된다. 전라북도 지역 중 3·1독립만세운동의 주도층이 100% 농업에 종사했던 층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장수와 순창, 남원, 익산, 김제, 남원, 장수, 무주와 함께 금산이 해당된다. 물론 전라북도 전체 주도층 가운데 농업에 종사했던 주도층이 43.8%로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144명의 주도층 가운데 농업에 종사했던 63명 중 금산이 10%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또한 가장 적은 시위 횟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층이 14개의 군에서 6번째로 많다는 점도 주목할 점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의 특징은 전체 7차례의 시위 중 폭력적인 시위는 한차례도 일어나지 않은 채 3차례의 적극시위와 4차례의 단순시위의 형태로 발생했다는 점, 전라북도에서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약 7만 7천여명 중 2%에 해당하는 1,500명이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점, 시위 발생 장소는 금산읍의 장터에서 2차례 일어났으며,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날은 어김없이 같은 날 밤에 산위에서 횃불시위가 진행되었다는 점, 전라북도에서 거의 가장 적은 횃수의 시위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병이 출동한 횃수가 4차례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발포된 횃수도 가장 많은 2차례라는 점, 시위횃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23명이라는 많은 피검자들이 발생했다는 점, 3·1독립만세운동의 주도층은 100% 모두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전라북도의 주도층 가운데 농업에 종사했던 63명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금산군민이었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전라북도에서 거의 가장 적은 7차례의 시위횃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도층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강도 높은 수준으로 받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라도의 3·1독립만세운동의 특징은 무종교자, 보통교육을 받은 사람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다수라는 점, 20세 전후의 청년층이 주도했다는 점,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지방에서 보통학교 생도들이 운동을 먼저 일으키고 주도하였다는 점, 직업적으로 농·임·어업 관계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꼽고 있다.¹²⁹⁾ 반면 전라북도의 3·1독립만세운동의 특징으로는 학생과 민중중심의 운동이었으나 종교인이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는 점¹³⁰⁾, 농민들이 3·1독립만세운동을 단독으로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의 경우 천도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 시위의 양상은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격렬했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¹³¹⁾ 이러한 전라도와 전라북도의 3·1독립만세운동의 흐름 속에서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10명 중 7명이 모두 20대였다는 점, 주도자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점, 학생이었던 임승환에 의하여 23일에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점 등은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전라도와 전라북도의 3·1독

12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625~630쪽.

130) 이창건, 「3·1운동의 지역별 주도세력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164~165쪽.

131) 이창건, 「3·1운동의 지역별 주도세력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191~192쪽.

립만세운동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다는 점, 종교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 3월 중순 이후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렬하지는 않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전라북도의 3·1독립만세운동은 농민들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에 반하여 금산에서는 종교인들의 움직임없이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전라북도 3·1독립만세운동의 흐름 속에서 금산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현재 금산군이 충청남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충남의 3·1독립만세운동과 금산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충남지방의 3·1운동이라는 주제는 김진호(『충남지방 3·1운동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에 의하여 자세하게 연구되었으나, 이 연구에서 충남지방의 범주에 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19년 당시 3·1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을 때는 금산이 전라북도에 속한 군이었으나, 현재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충남의 3·1독립만세운동과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김진호의 연구에 의하면 충남지방 3·1운동은 3월 2일 부여에서 독립선언서가 배부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3월 3일에는 예산의 윤철영 등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대전에서도 만세운동의 조짐이 나타났다. 3월 2일부터 시작한 3·1운동은 4월 30일까지 60여일 동안 14개군과 88개 읍면에서 연 195개면 256개리의 327개소에서 339회 이상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10일부터는 충남의 거의 전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고, 3월 27일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만세운동은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4월 초순 이후에는 일제의 무력적 탄압으로 쇠퇴하기에 이르렀다.¹³²⁾ 이렇듯 3월 초부터 60일동안 전개된 충남지방의 3·1독립만세운동의 흐름에서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개된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충남지방의 3·1운동이 확대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발생하였다.

또한 충남지방의 3·1운동의 특징과 연관하여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살펴보자. 첫째, 충남지방의 3·1운동은 만세시위와 봉화만세운동과 같은 평화적 비폭력적 시위운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일제의 대응에 따라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무력적인 폭력적 시위운동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금산군 역시 평화적, 비폭력적 시위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충남지방의 3·1운동의 연령층은 주로 2, 30대들이 주도하고 같은 연령층들이 참여하였지만, 천안의 사례에서 10대들이 주도한 만세운동도 있었다. 금산의 경우도 주도자 70%가 20대라는 점에서 같은 양상을 띄었다. 셋째, 충남지방의 3·1운동은 다양한 주도 계층과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전개되었으며, 종교계와 양반 유생과 학생들이 주도하였다. 금산 역시 100% 농민층들이 주도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지만,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은 종교계층이나 학생들의 영향이 전혀

132) 김진호, 『충남지방 3·1운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53쪽.

없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갖는다. 넷째, 충남지방의 3·1운동은 단순히 두 손을 높이 들고 만세를 외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독립선언서나 태극기 및 깃발 등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금산의 경우, 전체 8차례의 만세운동 중 독립선언서 배포 1차례, 봉화만세운동 1차례, 단순한 만세운동 3차례, 태극기를 이용한 만세운동이 3차례 진행되어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 역시 8차례 중 4차례가 독립선언서나 태극기 등을 이용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다섯째, 충남지방의 3·1운동은 주도 계층과 종교계층의 연합과 지역들 간의 연합이 활발했으며, 연합시기도 3월 7일부터로 다른 지방보다 일찍부터 이루어졌다.¹³³⁾ 그러나 금산은 4월 이후에야 간헐적으로 전라도의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3·1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고, 주도 계층과 종교계층들 간의 연합이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133) 김진호, 『충남지방 3·1운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55~158쪽 참조.

조선후기 금산 유학의 흐름과 사족활동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머리말

2010년에 금산군과 금산문화원에서는 『금산군지』의 집필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속해있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업무를 주관하게 되어 금산군의 지역 관련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번 학술발표회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러한 사전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산 지역의 조선시대 역사 분야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는 임진왜란기 금산전투에 관한 주제¹³⁴⁾가 매우 상세한 편이고, 조선후기 천주교전래와 진산사건¹³⁵⁾, 금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향촌활동을 분석한 연구¹³⁶⁾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산군과 금산문화원에서 발간된 지역사와 지역문화에 관한 단행본은 금산의 역사문화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¹³⁷⁾ 특히 금산지역의 지리지와 읍지를 번역한 『錦山

134) 金鎮鳳, 1982, 「壬辰亂中 湖西地方의 義兵活動과 地方士民의 動態에 관한 研究-趙憲의 義兵活動을 中心으로-」 『史學研究』 제34호

朴永喆, 1996, 「중봉 조헌의 의병활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정병연, 1997, 「중봉 조헌의 의리사상」 『儒敎思想研究』 9

곽호제, 1999, 「壬辰倭亂期 湖西義兵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趙溪來, 2000, 「任亂初期 두차례의 금산전투와 그 戰略的 意義」 『忠南史學』 12

郭鎬濟, 2000, 「壬辰倭亂期 梨峙大捷의 意義와 再檢討」 『忠南史學』 第12輯

崔槿默, 2000, 「壬辰倭亂期 錦山戰鬪의 殉節과 倭峙大捷에 대한 崇揚」 『忠南史學』 12

金祥起, 2000, 「壬辰倭亂期 權慄의 倭峙大捷」 『忠南史學』 12

오석원, 2004, 「중봉 조헌의 의리사상 (A Study on Jungbong Jo Heon's righteousness thought)」 『東洋哲學研究』 39

하태규, 2007,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135) 朱明俊, 1985, 「儒敎傳統社會의 祖上崇拜思想과 天主教의 對應: 辛亥 珍山事件을 中心으로」 邊太燮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삼영사

朱明俊, 1988, 「尹持忠家의 珍山移居에 대하여」 『敎會史研究』 제6집-李元淳敎授華甲紀念韓國敎會史論文集

함원식, 1999, 「진산사건에서 드러난 선교적 적응 문제에 대한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종익, 2009, 「정조시대 천주교 전래와 평등」 『法史學研究』 제40호

136) 金鍾武, 1996, 「朝鮮後期 錦山郡 富利地域의 在地士族-海平吉氏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李政祐, 1998 「朝鮮後期 在地士族의 동향과 儒林의 향촌지배 -全羅道 錦山郡 書院鄉校의 支配와 古文書類의 작성을 中心으로-」 『朝鮮時代史學報』 7

이병규, 2004, 「朝鮮後期 錦山·珍山地域의 社會經濟的 條件과 鄉村社會의 動向」 『인문학연구』

고순영, 2005, 「조선 후기 금산지역 사족활동의 사회사적 성격: 해평길씨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이해준, 2007, 「明齋 尹拯家와 市南 俞榮의 交遊」 『儒學研究』 15

137) 금산군, 1987, 『금산군지』

금산군, 1993 『금산인의 숨결과 발자취』

금산문화원, 1996, 『금산의 금석문』

금산문화원, 1996, 『금산문화』

금산문화원, 1997, 『금산의 고문서』 (이해준 해제)

금산문화원, 1998, 『錦山의 地理誌邑誌』

금산군, 1999, 『금산의 효자이야기』

금산문화원, 1999, 『금산의 탐 신앙』

의 地理誌·邑誌』, 서원·향교 및 개인이 소장한 전적과 고문서에 대한 조사 보고서인 『금산의 고문서』, 『금산의 금석문』 등은 조선시대 역사연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금산문화원이나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발표되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 성과가 소량 인쇄되고 지역내에서만 배포가 이루어져 연구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충청남도 금산군은 조선시대 금산과 진산 두 고을이 합쳐진 형태이다. 유의할 점은 금산과 진산이 전라도 전주목의 영현이었다는 사실이다. 같은 충청우도라 해도 홍주목과 공주목 지역 유학의 흐름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라도 전주목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추측되나 전주목의 사족 동향은 김장생과 송시열계의 영향을 받아 충청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게다가 금산과 진산이 지리적으로 충청우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지역간에 통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사제관계로 얽힌 학연도 두 지역을 하나의 색으로 묶는 바탕이 되었다. 조선시대 금산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은 고려말의 선진 성리학자인 윤택과 길재의 우거, 태조의 태실 설치, 임진왜란중의 금산전투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산 지역의 사족 활동이 연계되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금산과 진산 지역의 주요 성씨와 인물을 살펴보고 이들 가문의 성장과정에서 보이는 금산 지역의 유학의 흐름 및 사족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고에서 다루는 주요 성씨와 인물은 지면의 한계에 의해 전체 사족집단의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점은 향후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

2. 금산과 진산의 성씨 기록

고려말에서 조선초기까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는 매우 상세한 편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금산군의 성씨는 26개성에 이른다. 토성과 속성, 촌락성 등으로 구분되며 고려말까지 향소부곡이나 속현이었던 부리(富利), 대곡(大谷), 안성(安城), 횡천(橫川)의 성씨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 진산군(珍山郡)은 15개의 성씨가 있는데 토성과 속성(續姓)이 구분되어 있고 금산과 마찬가지로 주요 지역인 완산(完山)과 금암(金岩)의 성씨가 따로 나타난다.

성씨조에 기록된 토성 세력들은 고려 말까지 지방의 토호적 성격을 가지면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호장층으로 조선 건국 후 중앙정부의 집요한 노력에 의하여 대부분 행정실무 층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세종대까지도 이들은 세도를 유지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성리학적 소양을 가진 이거사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거나 혹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사족가문으로 변신, 향촌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영위하게 된다.

강성복, 1992, 『용화리의 역사』, 금산문화원

강성복, 2006, 『진악산 기슭에 꽃피운 천년의 터전』, 금산문화원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

- 금산군 : 토성(土姓)이 5이니, 김(金)·한(韓)·이(李)·손(孫)·양(梁)이요, 촌락성(村落姓)이 1이니, 백(白)이다. 부리(富利)의 성이 5이니, 황(黃)·장(張)·정(程)·배(裴)·임(任)이요, 대곡(大谷)의 성이 8이니, 하(河)·석(石)·정(鄭)·이(李)·유(柳)·안(安)·황(黃)·박(朴), 속성(續姓)이 1이니, 정(丁), 안성(安城)의 성이 4이니, 최(崔)·송(宋)·양(梁)·이(李), 횡천(橫川)의 성이 2이니, 손(孫)·김(金).
- 진산군 : 토성(土姓)이 5이니, 하(河)·진(陳)·장(蔣)·변(邊)·문(文)【어떤 책에는 문(門)이라 하였다.】, 속성(續姓)이 2이니, 박(朴)·김(金)【모두 향리(鄉吏)이다.】 완산(獐山)의 성이 4이니, 손(孫)·고(高)·제(提)【어떤 본(本)에는 제(堤)라 하였다.】·김(金), 속성(續姓)이 1이니 지(池), 【향리(鄉吏)이다.】 금암(金岩)의 성이 3이니, 정(鄭)·김(金)·명(明).

조선초기 성씨의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가 참고가 된다. 세종실록지리지 이후 약 80여년 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큰 변화가 없지만 몇 개의 성씨가 추가되거나 순서가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씨조]

- 금산군 : 본군 김(金)·한(韓)·이(李)·손(孫)·양(梁), 백(白) 촌성(村姓)이다. 부리(富利) 정(程)·임(任)·황(黃)·장(張)·배(裴)·하(河)·석(石). 대곡(大谷) 하(河)·석(石)·정(鄭)·이(李)·유(柳)·안(安)·황(黃)·박(朴), 정(丁) 속성(續姓)이다. 안성(安城) 최(崔)·양(梁)·송(宋)·이(李). 횡천(橫川) 김(金)·손(孫).
- 진산군 : 본군 하(河)·진(陳)·장(蔣)·변(邊), 문(文) 문(門)으로 기록된 곳도 있다. 이(李)·박(朴)·김(金) 속성(續姓)이다. 완산(獐山) 손(孫)·고(高), 제(堤) 혹은 제(提)로 기록하였다. 김(金), 지(池) 속성(續姓)이다. 금암(金巖) 김(金) 혹은 전(全)으로 기록하였다. 명(明)·정(鄭). 횡정(橫程) 고(高)·박(朴)·김(金)·이(李)

금산의 속현이었던 부리(富利)에는 하(河)·석(石)의 성씨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성씨의 순서도 달라졌다. 기록 순서의 변화는 당시 토착세력의 판도 변화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기존의 기록에 뒤에 있던 정씨와 임씨가 앞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큰 변화로 보기는 어렵고, 새로 추가된 하(河)씨와 석(石)씨는 대곡의 토성이었던 성씨이므로 타지에서 유입된 것은 아닌 듯 하다.

진산군은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토성은 변화가 없으나 속성(續姓)에서 이(李)씨가 새롭게 등장하고, 완산(獐山)의 성씨였던 김(金)씨가 속성(續姓)에 추가가 되었으며,

금암(金岩)에 김(金)씨가 전(全)씨로 기록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횡정(橫程)의 성이 추가되어 고(高)·박(朴)·김(金)·이(李)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인문적 요소가 강조된 지리지로 인물, 누정(樓亭), 제영(題詠) 등 당시 지역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중 우거조(寓居條)에 고려 인물인 윤택(尹澤, 1289~1370)과 그의 아들 윤구생(尹龜生)·윤소종(尹紹宗, 1345~1393)·윤희종(尹會宗)이 등장하는데 고려말 무송(茂松)윤씨가 금산으로 우거하여 내성(來性)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성씨조에 윤씨가 없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된 성씨의 토착적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1650년대에 편찬된 『동국여지지』¹³⁸⁾에 야은 길재(吉再 1353~1419)가 해평길씨의 입향조로 소개되어 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언급되지 않았다.¹³⁹⁾

진산군의 인물조에서도 속성(續姓)에 추가된 성씨인 김(金)씨의 인물로 보이는 김천석(金天錫)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김천석은 효행이 지극했고 벼슬이 관찰사에 이르렀다.¹⁴⁰⁾ 김천석은 『동국삼강행실도(東國三綱行實圖)』에 등재되었으며 진산의 원산향(猿山鄉) 미삭리(彌朔里)¹⁴¹⁾ 앞에 효자 정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인물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각 인물의 본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본관이 확인된 금산의 인물은 금산김씨와 금계한씨, 무송윤씨 등이다. 열녀 삼덕의 남편인 양적은 금산의 토성으로 나타나는 양씨였을 것이다. 진산의 김천석은 이 시기에 본관이 진산이었을 것이지만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다.

<표> 신증동국여지승람 인물조

군현	항목	인물	주요행적
금산	인물	金仇	충렬왕대에 금산이 군으로 승격되는 계기마련. 칙령으로 사당을 짓고 제사지냄
		金摯	左司諫
		金日休	大司成
		韓噉	直提學 효자정려.
	우거	尹澤	공민왕의 스승
		尹龜生	윤택의 아들
		尹紹宗	
		尹會宗	
진산	열녀 인물	三德	梁湯의 처. 정려, 복호
		金天錫	觀察使. 효행으로 명정

138) 『동국여지지』 유우조(流寓條) “길재의 아버지 원진(元進)이 금주(錦州)를 다스릴 때에 따라왔다가, 본 고을 사람 신면(申勉)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예전에 살던 곳이 군 동쪽 7리에 있다.”

139) 해평길씨는 조선후기의 『여지도서』나 『금산군읍지』 등 에 금산군의 성씨로 등재됨.

140) 『태종실록』 권21, 11년(1411) 신묘 6월 9일(무술) “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김천석(金天錫)이 죽으니, 미두(米豆) 아울러 40석(石)과 종이 1백 권(卷)을 부의(賻儀)로 내려 주고, 또 사람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관곽(棺槨)을 하사(下賜)하였다.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그 이름은 김포(金布)이다.”

141) 추부면 대암리 미삭이 마을

인물기록에서 주목되는 점 중에는 고려 후기 지역의 토착 유력성씨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이다. 고려시대 각 지역은 호장층으로 불리워지는 토성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다. 고려 성종때부터 중앙에서 외관이 파견되기 시작했지만 실제 수령이 파견된 지역은 3분의1도 안되는 수준이었고, 그나마 파견된 관리들도 지역세력을 인정하거나 타협하는 바탕위에서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다. 각 지역의 토착지배세력들은 자신들의 대표성과 지위 유지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는데 그중 인물에 대한 제사도 하나의 방편이었다¹⁴²⁾.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금산에서는 김신에 대하여 칙령(勅令)으로 사당을 짓고 사중(四仲 ; 仲春·仲夏·仲秋·仲冬)과 기일(忌日)에 제사를 지낸것이 조선초까지 이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김신은 후에 성곡서원(星谷書院)에 배향되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언급하는 김신의 사당은 조선후기의 사우 개념과는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신은 금산을 군으로 승격시키는데 일조한 인물이고 ‘칙령’에 의해 사당을 지었다는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에서 인격신으로 모셔졌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금산의 제천대(祭天臺)는 김신이 초제(醺祭)를 베풀고 하늘에 기도하던 곳¹⁴³⁾이라는 사실은 당시 금산김씨의 위상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진산의 경우 여지도서 진산군지 고적조(古跡條)에 ‘금성당(錦城堂)’이 있다. 이에 의하면 ‘본관이 나주(羅州)인 진창(陳昌)이 세운 것이며 하나같이 나악(羅岳)처럼 생겼고, 진씨(陳氏) 성을 가진 사람들이 봄·가을에 모여 제사를 지낸다’고 되어있다. 진창은 고려시대 인물이며 훗날 그의 후손중 판서(判書) 진유(陳裕)의 손자인 진순도(陳舜道)가 진산에서 태실 터를 조정에 알려 태조태실이 조성되고 진산현을 주(州)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금성당이 어떤 형태였으며 어디에 있던 것이었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사료는 없다. 또한 전라도 나주의 읍사로 유명한 금성당과의 관계도 애매하여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가 필요하나 어쨌든 진창(陳昌)은 진산의 토성으로 기록된 진씨가 분명하며 그에 의한 제사시설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고려시대 지역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토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금산 지역에는 보다 더 많은 성씨들이 등장한다. 조선후기 읍지류에서는 토성과 속성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몇몇 새로운 성씨들도 기록된다. 1793년에 편찬된 『금산군읍지』에서는 새로운 성씨로 전(全)·길(吉)·성(成)·조(趙)·서문(西門)·임(林)씨가 새롭게 등장한다.¹⁴⁴⁾ 몇몇 성씨가 새로 나타나고 있지만 1700년대까지 금산지역의 토착성씨들은 여전히 향촌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가 사족으로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지리지인 『여지도서』의 진산군 편에서는 새로운 성씨가 등장하는데 이 때는 토성과 속성을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며, 정(鄭)·오(吳)·양(楊)·안(安)·최

142) 이해준, 1998, 「순창 성황제의 변천과 주도세력」, 『성황당과 성황제-순창 성황대신사적기 연구-』, 한국종교사연구회편, 민속원 (p.198)

143) 錦山郡邑誌. 금산군 樓亭條

144) 金·韓·李·孫·梁·白·程·任·黃·張·裴·河·石·安·鄭·朴·崔·丁·全·吉·成·趙·西門·林

(崔)씨가 추가되었다. 같은 사료의 인물조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기록되어 있던 김천석 이외에도 다른 인물들 추가 보안되고 있다. 토성인 진(陳)씨로 보이는 진순도(陳舜道), 속성(續姓)인 박(朴)로 보이는 박태원(朴泰元), 그리고 성씨의 기록에 보이지 않는 전추(田秋)가 있으며, 서소사(徐召史), 이소사(李召史), 배소사(裴召史) 등의 열부나 효부도 등장한다. 특히 배소사(裴召史)는 『숙종실록』에 “전라도(全羅道) 진산군(珍山郡)의 사인(士人) 이국량(李國亮)이 호랑이에게 물렸는데, 그 처 배씨(裴氏)가 낫을 들고 쫓아가서 치니, 호랑이가 마침내 이국량을 버리고 배씨를 잡아 먹었다.” (1710년 10월 20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그의 남편 이국량(李國亮)이 진산인으로 속성 중 하나인 이(李)씨 임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이후의 읍지인 『호남읍지(1871)』, 『호남읍지(1895)』 등 다른 기록들은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후의 성씨 변화를 추측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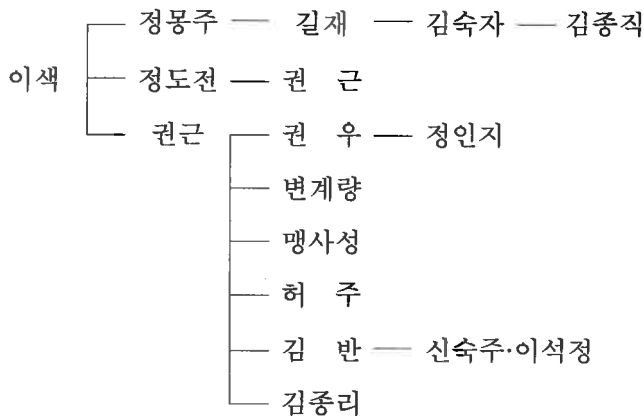
3. 성리학 도입기의 금산지역

조선시대 유학사에 있어서 성리학의 도입 시기에 등장하는 야은 길재(吉再, 1353~1419)는 조선 초 사림파의 형성에 씨앗을 뿌린 인물이다. 길재는 경상도 선산 사람으로¹⁴⁵⁾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개경에 이르렀다가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권근(權近) 등 여러 선생의 문하에서 종유(從遊)하며 비로소 학문의 지론(至論)을 듣게 되었다. 1374년(공민왕 23)에 23세의 나이로 국자감에 들어가 생원시에 합격하고, 1383년(우왕 9)에는 감시에 합격하였다. 1384년에 성균학정이 되었고, 이듬해 순유박사(詢諭博士)를 거쳐 성균박사로 승진되었다. 태학의 생도들과 양반자제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어 배우기를 청하였을 만큼 학자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1386년 진사시에 급제하여 청주목 사록(司錄)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389년(창왕 1)에 문하주서가 되었으나 1390년 봄에 나라가 장차 위태함을 알고서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가는 길에 이색에게 들러 하직을 고하였다. 1391년(공양왕 3)에 계림부(鷄林府)와 안변(安邊) 등지의 교수로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으며, 우왕의 부음을 듣고 채과(菜菓)와 혜장(醢醬) 따위를 먹지 않고 3년 상을 행하였다.

조선 건국 후 태종(太宗)이 태상박사(太常博士)를 제수(除授)했으나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고 거절하고 고향 선산에서 후진들의 교육에 진력하였다. 그의 문하에서는 김숙자(金叔滋) 등 많은 학자가 배출되어, 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로 그 학통이 이어졌다. 특히 조광조 등 기호지방 출신 선비들이 배출됨으로서 유교의 이상적인 도학정치를 실현하려는 사림의 정신을 발현하게 되었으며 뒤에 이황(李滉)·이이(李珥) 같은 학자가 탄생될 수 있었다.

145) 현재의 경상북도 선산군 교하면 봉계리

<표>려말선초의 성리학 학맥의 계승



길재는 경상도 선산 사람이지만 아버지 길원진(吉元進)이 지금주지사(知錦州知事)로 금주(금산)의 외관으로 파견되면서 이를 계기로 금산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1383년(우왕 9)에 금산 사람인 랑장(郎將) 신면(申勉)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이듬해에는 부친상을 당하자 부리에 장사지내고 3년간 금주 부리에서 우거(寓居)하였다. 세종실록 중 길재의 졸기에서 처부(妻父) 신면(申勉)의 종 10명이 도피하였다는 기사가 있어 당시 처가인 신씨 집안의 가세가 넉넉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¹⁴⁶⁾

말년에 주로 경상도 선산에서 제자를 기르며 우거하였으나 간간히 부친의 묘소 옆에 와서 살았으므로 그 후손들이 금주에서 대대로 세거하게 되었다. 배위 신씨의 묘가 제원면 저곡리 금강초등학교 뒤편에 자리잡고 있다.

길재가 금산에 머무는 동안 금산을 중심으로 전라도 및 충청지역의 인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초의 기록이 많지 않아 학맥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조선초 성리학의 수용에 선구적 위치에 있던 윤택(尹澤, 1289~1370)과 윤구생(尹龜生, 1317~1381) 부자가 금산 초현리 출신이다. 고려말 전라도 무송현(茂松縣)의 호장(戶長) 집안 출신이었던 윤수평(尹守平)¹⁴⁷⁾이 금산김씨와 혼인하고 충렬왕 어간에 처가가 있는 금산 초현리로 이거하면서 무송윤씨가 세거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윤수평의 아들 윤택은 충숙왕으로부터 공민왕의 보위를 부탁받은 고명대신(顧命大臣)이었고, 그의 아들 윤구생은 주자의 가례를 실천하여 사당을 짓고 삼대의 제사를 지내 조정에 알려졌으며 훗날 『고려사』 효우열전(孝友列傳)에 등재되기까지 한 선진적인 성리학자였다.¹⁴⁸⁾ 윤구생의 아들 윤소종(尹紹宗, 1345~1393)은 1360년(공민왕 9) 성균시에 합격하였고, 이색(李穡)의 문인으로 1365년 예부시에 을과 제1인으로 대책이 가장 뛰어

146) 『세종실록』 권3권, 1년(1419) 4월 12일 병술조.

147) 國學大司成 文翰司學을 지낸 尹譜(1231~1307)의 장남

148) 1391년(공양왕3) 전라도감찰사 盧崇의 청으로 나라에서 그의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旌閭를 내리고 효자비를 세웠으며 조세·부역을 면해주었다.

나 춘추수찬(春秋修撰)을 배수받았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1381년 모친상으로 금주(錦州: 錦山)에서 복상을 마치는 동안 남방의 학자들이 많이 와서 수학하였다고 한다.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사전(私田)의 혁파에 협력하였고 공양왕대에는 왕의 미움을 받아 금주(금산)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조선 건국 후 병조전서(兵曹典書)로 부름을 받았고 원종공신이 되었으며, 수문관대제학(修文館大提學)을 지냈다. 경사(經史)와 성리학에 정밀하기로 이름이 났다. 윤소종의 아들 윤희(尹淮, 1380~1436)도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에 이르렀으며 ‘문도(文度)’의 시호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1362년(공민왕 11) 고려 말 성리학의 대가였던 가정(稼亭) 이곡(李穀 1298~1351)의 문집 판각이 금산에 보존되기도 하였다. 초간본은 이곡의 아들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20권으로 편집하고, 매부인 박상충(朴尙衷)이 간행하였는데, 박상충이 당시 금산의 군수로 있었던 것이 그 배경이 되었다. 박상충은 김구용(金九容)·정몽주(鄭夢周)·박의중(朴宜中)·이승인(李崇仁) 등과 함께 성균관 교수를 지냈고, 유교적인 의례를 충실히 따랐던 인물이다. 고려말 이러한 인물이 금산지역의 수령으로 부임하였다는 것도 지역사에 의미가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1364년(공민왕 13)에 가정문집의 서문을 윤택이 썼다는 것이다. 윤택의 아들인 윤구생이 목은 이색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이 일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려말 성리학을 수용하여 개혁적 성향을 지녔던 무송윤씨가의 인물을 비롯해 성리학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여 조선을 유교국가로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하였던 야은 길재 등은 금산을 조선초기 유학의 본거지로 자리잡게 하였다.

4. 사족의 입향과 정착

조선중기에 왜란과 호란 등의 병란이 이어지면서 국가적인 혼란기에 접어들었고, 이때에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일반 양인은 물론이고 양반 사족이 처향이나 외향 또는 학문적으로 인연이 있는 지역으로 이거하는 경우가 쉽게 확인된다. 금산지역에는 1600년대에 들어 사림계의 거목이 입향하여 이 지역의 유학적 전통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1637년 미촌 윤선거와 시남 유계가 남일면 마가산 밑에 은거하여 산천재에서 강학하였고, 초려 이유태가 영변유배에서 풀린 뒤 형인 이유택이 거처하던 금성면 하류리 문회당에 머물렀다. 소론의 영수로 지목되는 명재 윤증이 사직 후 돌아와 강론한 곳도 금산이었다.

당대 유력인사이자 학문적으로 정점에 있던 이들이 금산에서 학문을 강론하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금산지역은 유학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모여 학문을 익히고 정세를 논하는 과정에서 대립과 반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금산의 역사적 전통과 위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선 곳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입향한 주요 성씨와 사족의 흔적은 각종 기록류와 향교, 서원과 사우, 충·효·열 정려 등의 문화유산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조선후기에 편찬된 지리지 중 여지도서와 호남읍지 등의 인물조에 등재된 사람들은 당시 지역의 유력한 성씨로 판단되는데,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중복 등재된 이들을 제외하면 조선 건국 후 이 지역에 입향한 이들의 성씨와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본관이 누락되어있지만 대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다.

<표> 조선후기 지리지의 인물조¹⁴⁹⁾

군현	항목	성명	주요행적
금산군	인물	尹澤	성곡서원 배향
		吉再	성곡서원 배향
		韓皦	효자정려
		金仇	성곡서원 배향
	효자	尹龜生	효자정려
		李惟澤	이유태의 형. 효자정려, 복호, 사당(없어짐)
		金稱	효자정려
		宋永立	平民, 효자정려
		朴天宙	효자정려, 추증
		薛邦英	효자정려
		全在禮	효자정려
		全自望	부역과 조세면제
		金善億	부역과 조세면제
	열녀	三德	良女, 효자정려
		金氏	良女, 金夏圭의 며느리, 金壽天의 처. 정려
		河氏	李柱漢의 처. 정려
진산군	인물	金天錫	효자정려. 삼강행실 수록
		陳舜道	陳裕의 손자. 林州使 임명
		田秋	태실산의 주인. 懷仁縣監 임명
		朴泰元	효자. 감영에서 쌀을 내림
		徐召史	효부. 감영에서 쌀을 내림
		李召史	효녀
		裴召史	열녀

금산의 효자 김칭(金稱, 1455~1532)은 김해김씨로 호는 수은(繡隱)이며 훈도(訓導)를 증직받았다. 부모 모시기를 지성으로 봉양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중종과 인조의 국상때에도 3년상을 치렀다고 한다. 그의 행적은 『동국신속 삼강행실도』에도 기록이 되었다. 1561년(명종 16)에 명정과 증직을 받았다.¹⁵⁰⁾ 김해 김씨의 입향 과정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 외에 군북면에는 김희운(金希運, 1546~1625)이 임진왜란을 피해 입향하였다 하며 그 후손이 거주하고 있다.

박천주(朴天宙, ?~1616)는 반남박씨로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인 제주고씨가 병이 위중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피를 드려 소생시켰다. 이 사실이 알려져 증직과 명정을 받게 되었다. 반남박씨의 금산 입향조는 박린(朴麟, 1414~1458)으로 남효온, 원호와 증유하여 도의로 사귀었고, 진산군수로 있던 중 단종이 폐위되었다는 소식

149) 여지도서, 호남읍지 등의 인물조가 모두 동일한 내용임.

150) 『명종실록』 권27, 16년(1561) 12월 28일 계미조

을 듣자 사직하고 영월로 가려 하였는데 마침 모친이 위독하여 초야에서 지냈다. 그 충절이 마치 도연명이 울리에서 숨어살던 절개와 같다하여 그의 호를 ‘의률(擬栗)’이라 하였다.¹⁵¹⁾ 박린의 아들 박희권(朴希權, 1447~?)은 효심이 지극해 3년 시묘살이를 하였고 훗날 증직을 받았는데 그의 행장은 유희춘(柳希春)이, 그 사적은 이유태(李惟泰)가 기록하였다.

반남박씨 박호의 사위였던 남원양씨 양우(梁佑)는 처가의 인연으로 금산에 입향하였고 후손 중 양제(梁濟, 1550~1593)는 금산의 유력 성씨였던 해평길씨 길수온(吉守溫)의 딸과 혼인하여 남원양씨가 세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양제는 임진왜란때 진주성 전투 중 자결하여 후에 증직되었고 충민사(忠愍祠)와 창열사(彰烈祠)에 배향되었다¹⁵²⁾. 지리지 인물조의 열녀로 기록된 삼덕(三德)은 양탕(梁湯)의 아내로 명정과 복호(復戶)의 포상을 받았다.

전재례(全在禮, 1706~1729)는 천안전씨로 효심이 깊어 시묘살이를 하였고 제원역에 유배왔던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훗날 암행어사 홍택(洪澤)의 보고로 군북면 내부리에 정각을 세웠다. 천안전씨는 전충노(全忠老)가 금산입향조이다. 전충노의 처는 순창설씨(淳昌薛氏)로 설씨는 인물조에 설방영(薛邦英)이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전충노에게는 다섯아들이 있는데 이중 셋째 아들인 전이손(全利孫, ?~1653)을 데리고 금산 신안리로 입향하여 후손이 세거하게 되었다.¹⁵³⁾

금산의 효자로 기록된 이유택(李惟澤)은 경주이씨로 그의 아버지인 이서(李曙, 1570~1616)가 금산의 입향조이다. 이서는 1616년(광해군 8)에 형인 이시(李時)를 따라 서울 남소문동에서 금산으로 내려왔는데, 형은 현재의 금성면 하신2리 윗삽실 마을에 터를 잡았고, 이서는 유곡(현재 금성면 하류리)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¹⁵⁴⁾. 금산군수 이안눌(李安訥)¹⁵⁵⁾의 시 「금산십승(錦山十勝)」에 이서 형제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이서와 부인 청풍김씨는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장남 유택(惟澤)은 현감이고, 둘째 유부(惟孚)는 참봉, 유태(惟泰)는 호가 초려(草廬)로 승지가 되었고, 유익(惟益)은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유겸(惟謙)은 현감이다. 초려 이유태가 형인 이유택 등의 여러 형제들과 함께 유곡리(파초리의 인근마을)에 문회당(文會堂)을 건립하여 수천권의 경서를 비치하고 향수재와 자제들을 강학하였다.

지리지의 인물조 기록과 함께 조선시대 금산지역 사족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생원·진사급제자 명단인 사마방목이다. 생원·진사시에 급제한 이들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사마방목은 문과방목과 달리 각 급제자의 거주지가 표기되어 있고, 입격자의 가계와 관직진출여부에 대한 정보가 충실하여 조선시기 각 지역에 형성된 사족집단을 살

151) 묘가 부리면 내장리에 있음.

152) 묘가 금성면 백동산 후록에 있음.

153) 묘가 금성면 하신리에 있음. 묘비를 1685년 우암 송시열이 찬함.

154) 이서의 처 청풍김씨의 묘가 남이면 석동리 보석사 뒷산에 있음.

155) 1611년 10월 ~ 1613년 10월 재임

피는데 좋은 기초자료이다. 다음의 표는 거주지가 금산과 진산으로 되어있는 이들의 명단을 본관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금산거주 사마급제자 (본관 순)

성명	시험년도, 종류	생년	본관	부친/생부	형제
유병기(劉秉夔)	1879 高宗 16 式年 進士	1837	강릉(江陵)	유동원(劉東源)	유병관(劉秉權), 유병칠(劉秉七) 유병협(劉秉) 유병우(劉秉宇)
유상렬(劉祥烈)	1882 高宗 19 增廣 生員	1847	강릉(江陵)	유병관(劉秉權)	유극렬(劉克烈) 유규열(劉奎烈) 유흥렬(劉興烈)
유재석(劉載錫)	1894 高宗 31 式年 進士	1877	강릉(江陵)	유규열(劉奎烈)	유재수(劉載秀) 유재한(劉載漢)
김계용(金啓溶)	1864 高宗 01 增廣 生員	1816	강릉(江陵)	김매진(金邁鎭)	김계구(金啓求), 김계태(金啓泰) 김계승(金啓承)
이단례(李端禮)	1699 肅宗 25 式年 生員	1655	경주(慶州)	이영(李穎)	이단인(李端仁), 이단의(李端義)
김영순(金永順)	1874 高宗 11 增廣 進士	1833	광산(光山)	김기현(金璣鉉)	김영응(金永膺)
이상(李相)	1657 孝宗 08 式年 生員	1636	금산(金山)	이만엽(李萬葉)	이격(李格) 이주(李柱) 이환(李桓)
한연(韓璉)	1528 中宗 23 式年 進士		금산(鎭山)	한사경(韓思敬)	
박정(朴珽)	1616 光海 08 增廣 生員	1589	나주(羅州)	박수증(朴壽)	박황(朴璜) 박형(朴珩)
박문진(朴文進)	1654 孝宗 05 式年 生員	1627	나주(羅州)	박현(朴玆)	박문준(朴文遵), 박문수(朴文遂), 박문술(朴文述)
홍준섭(洪駿夔)	1850 哲宗 01 增廣 生員	1830	남양(南陽)	홍병천(洪秉天) 홍병규(洪秉奎)	
양구사(梁九思)	1650 孝宗 01 增廣 進士	1608	남원(南原)	양덕길(梁德吉)	양구성(梁九成)
양형일(梁亨一)	1673 顯宗 14 式年 生員	1643	남원(南原)	양구사(梁九思)	
정희모(鄭喜謨)	1891 高宗 28 增廣 生員	1858	동래(東萊)	정인성(鄭寅星) 정인창(鄭寅昌)	
김진환(金鎭)	1894 高宗 31 式年 進士	1874	부안(扶安)	김초순(金初順)	김진악(金鎭岳) 김진우(金鎭宇)
김진우(金鎭宇)	1894 高宗 31 式年 進士	1867	부안(扶安)	김초순(金初順)	김진악(金鎭岳) 김진환(金鎭)
박익무(朴益茂)	1750 英祖 26 式年 生員	1690	상주(尙州)	박시환(朴時煥)	박재무(朴再茂)
권극인(權克仁)	1837 憲宗 03 式年 生員	1791	안동(安東)	권중리(權中履)	권익인(權翊仁)
권익인(權翊仁)	1843 憲宗 09 式年 進士	1802	안동(安東)	권중리(權中履)	권극인(權克仁)
권용일(權用一)	1846 憲宗 12 式年 進士	1812	안동(安東)	권극인(權克仁)	권용준(權用準)
서문선(西門)	1660 顯宗 01 式年 生員	1623	안음(安陰)	서옥(西煜)	서문숙(西門塾) 서문탄(西門坦), 서문해(西門垓), 서문연(西門)
송정헌(宋廷憲)	1894 高宗 31 式年 進士	1876	은진(恩津)	송병완(宋秉琬) 송병관(宋秉權)	송순헌(宋純憲)

강찬영(姜贊永)	1867 高宗 04 式年 生員	1796	진주(晉州)	강황회(姜璜會)	
정상일(鄭相一)	1738 英祖 14 式年 生員	1694	진주(晉州)	정태래(鄭泰來)	정사일(鄭師一), 정광일(鄭光一)
김준(金濬)	1504 燕山 10 式年 生員		청원(淸源)		
한건(韓健)	1740 英祖 16 增廣 進士	1677	청주(淸州)	한성헌(韓聖憲)	한병(韓楳)
김성헌(金成憲)	1682 肅宗 08 增廣 進士	1636	청풍(淸風)	김예갑(金禮甲)	
이승찬(李承贊)	1891 高宗 28 增廣 生員	1862	한산(韓山)	이절재(李節在) 이구재(李龜在)	이승환(李承) 이승선(李承璇)
조염(趙濂)	1627 仁祖 05 式年 生員	1602	한양(漢陽)	조정기(趙廷機)	조숙(趙淑) 조식(趙湜)
길휘조(吉徽祖)	1710 肅宗 36 增廣 生員	1666	해평(海平)	길호신(吉好信)	길찬조(吉纘祖), 길경조(吉景祖)

거주지가 금산인 생원·집사 급제자는 총 30명인데, 물론 이것은 현존하는 사마방목 중에서 확인되는 이들의 명단이며 실제 금산에 거주했더라도 거주지를 서울로 표기하는 경우는 본 자료에서 누락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가 있기는 하나 적어도 이 자료에 등재되어있는 이들은 당대 금산에서는 위세가 있는 성씨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본관과 성씨를 분석하여 2인 이상의 급제자를 배출한 경우는 강릉유씨(3), 안동권씨(3), 나주박씨(2), 남원양씨(2), 부안김씨(2) 등이고, 1인을 배출한 19개 성씨는 다음과 같다.

강릉김씨, 경주이씨, 광산김씨, 금산이씨, 금산한씨, 남양홍씨, 동래정씨, 부안김씨, 상주박씨, 안음서문씨, 은진송씨, 진주강씨, 진주정씨, 청원김씨, 청주한씨, 청풍김씨, 한산이씨, 한양조씨, 해평길씨.

이를 통해 금산에는 고을의 규모에 비해 여러 성씨가 등장하고, 인물조에 등재된 이들의 가문은 모두 사마방목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산의 경우 고을 규모가 금산에 비해 작았고, 사족세도 약한 곳으로 사마급제자가 11명이 확인된다. 그리고 모두 1700년대 이후의 시험을 통해 급제하였고 그중에 9명이 1800년대 후반의 급제자라는 점을 보면 진산의 사족층이 1700년대부터 성장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2인 이상 배출한 성씨는 광산김씨(3), 전주이씨(2)이고, 단양우씨, 안동권씨, 창원황씨, 청주한씨, 평강채씨, 해남윤씨가 각 1명씩 급제하였다.

<표> 진산거주 사마급제자(본관 순)

성명	시험년도, 종류	생년	본관	부친/생부	형제
김정현(金政鉉)	1882 高宗 19 增廣 生員	1845	광산(光山)	김재직(金在直)	
김영진(金永晉)	1885 高宗 22 式年 進士	1850	광산(光山)	김일현(金一鉉) 김오현(金五鉉)	김영익(金永益)
김민수(金敏洙)	1894 高宗 31 式年 進士	1875	광산(光山)	김영익(金永益)	
우명적(禹明績)	1726 英祖 02 式年 生員	1686	단양(丹陽)	우단규(禹宣圭)	
권성수(權聖洙)	1874 高宗 11 增廣 進士	1833	안동(安東)	권종건(權鍾健)	
이득두(李得斗)	1867 高宗 04 式年 生員	1797	전주(全州)	이해익(李海翼)	

이기원(李基遠)	1873 高宗 10 式年 進士	1819	전주(全州)	이면행(李勉行)	이인원(李麟遠) 이능원(李能遠)
황한수(黃漢秀)	1891 高宗 28 增廣 生員	1831	창원(昌原)	황낙연(黃樂淵)	황비수(黃泌秀) 황건수(黃健秀)
한익봉(韓翊鳳)	1888 高宗 25 式年 生員	1846	청주(淸州)	한곤(韓琨)	
채윤전(蔡潤鎭)	1789 正祖 13 式年 進士	1748	평강(平康)	채홍익(蔡弘翼)	채도전(蔡道鎭)
윤지충(尹持忠)	1783 正祖 07 增廣 生員	1759	해남(海南)	윤경(尹憬)	윤지헌(尹持憲)

5. 서원·사우의 건립

조선시대 지역내 사족활동의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서원(書院)과 사우(祠宇)의 건립 및 운영실태이다. 사우(祠宇)는 선현을 추모하고 유덕(遺德)을 기리는 제사적 기능을 가지며, 서원은 제향처(祭享處)이자 후진을 교육시키는 교육처였다. 조선후기에 서원의 역할은 단순한 제향과 교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심대하여 해당 학파의 본거지로 존재하며 정치성을 띄게 되었다. 각 서원의 성격은 제향된 인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향인의 성격이 충절인이 아닌 문신이나 학자일 경우에는 특정 학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금산지역의 서원·사우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금산 지역의 서원·사우

서원	소재지	창건연대	배향인물
星谷書院	남이면 성곡리	1613년(광해 5)	金旿, 尹澤, 吉再, 金淨, 高敬命, 趙憲
龍江書院	제원면 용화리	1716년(숙종 42)	宋時烈, 宋浚吉, 金元行, 兪榮, 宋明欽
淸風書院 (不二影堂)	부리면 불이리	1672년(현종 12)	吉再
草廬書院 (礪溪書院)	금성면 하류리	1632년(인조 11)	李惟泰
山泉齋書院	남일면 음대리	1663년(현종 4)	尹宣舉, 尹拯
從容祠	금성면 의총리	1647년(인조 25)	高敬命, 趙憲, 高因厚, 邊應井, 柳彭老, 安瑛, 李光輪, 趙完基, 韓楯, 趙憲幕佐, 高敬命幕佐, 高敬命士卒, 趙憲士卒
忠烈祠	금성면 상가리	1831년(순조 31)	吳應鼎, 吳穢, 吳稷, 吳邦彦
柳谷祠 (柳谷書院)	금성면 하류리	1611년(광해 3)	韓暲, 李惟澤
趙憲祠堂 (表忠祠)	복수면 곡남리	1649년(인조 27)	趙憲
石浦齋書院	부리면 창평리	숙종말	許穆

금산 지역은 조선시대 전라도에 속해있었지만 충청도와 경계를 접하여 거리상 가까웠고 충청도의 명문가와 학맥, 혼인관계 등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조선중후기 김장생 문인의 근거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도가 충청도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¹⁵⁶⁾ 뿐만아니라 이들중 대부분이 전주목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금산과 진산의 사족 활동이 충청도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

다. 김장생의 문인 비율과도 연계되는 충청도 연산의 돈암서원 봉안시(1635) 참여록에서 참석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공주목, 홍주목, 청주목의 군현과 함께 전주목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원과 사우에 배향된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시 금산 지역의 유품이 조선초기의 성리학자인 윤택과 길재 등에게서 비롯되어 이유택, 이유태 형제와 중봉 조헌에게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후에 서인 노론계의 대표적인 인물인 송시열, 송준길, 김원행, 유계, 송명흠과 소론계의 윤선거, 윤증 등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인다.

금산지역에서는 김신, 윤택, 길재, 김정, 고정명, 조헌 등 금산의 향현 및 임진왜란 중의 순절인을 모신 성곡서원(星谷書院)이 가장 먼저 창건되었다. 성곡서원은 금산군수로 부임한 이안눌이 주도하여 1613년(광해군 5) 건립하고 이어 부임한 군수 김원록에 의해 봉안되었으며 1663년(현종 4)에 사액을 받았다. 편액의 글씨를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이, 학규(學規)는 초려 이유태(草廬 李惟泰)와 진보현감 이진병(眞寶縣監 李震炳)이 함께 지었고 원규(院規)도 이유태가 지었다. 이 무렵 임진왜란 중 전사한 이들을 제향하는 중용사의 건립도 함께 추진되었다. 1647년 금산군수 홍처대(洪處大)와 호서 · 호남 유림들이 함께 사우를 건립하였고, 1655년(효종 6)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쓴 재기(齋記)를 붙였으며, 1661년에는 초려 이유태가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려 2년만에 ‘중용사(從容祠)’라는 사액과 제토를 받게 되었다.

1664년(현종 4)에는 유곡사를 짓고 한교를 제사지내다 이유택이 타계하자 1668년에 유곡사에 배향하였다. 유곡사는 1702년(숙종 28) 향현사(鄉賢祠)로 사액 받았다. 1671년(현종 12) 금산 부리에는 야은 길재를 제향하는 불이사(不二祠, 淸風祠)가 창건되었다. 불이사는 청풍사로도 불리우며 길재의 후손과 금산 사족함께 주도하여 건립하였으며 사액받지는 못하였다.

이유태(1607~1684) 사후에 그를 배향하는 서원도 창건되었는데, 기록상으로 반계서원과 초려서원 두개의 서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된다. 그런데 기록상 반계서원과 초려서원의 위치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되어있고, 배향인물과 시기가 중복되므로 두 서원이 별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694년(숙종 20) 유생 이진환(李震煥) 등이 상소하여 서원건립을 요청하였고 1721년 반계서원(초려서원) 창건된 후 이유태를 독향(獨享)하였다. 1741년(영조 17) 서원남설 금령에 저촉되어 불이사(不二祠, 淸風祠)와 반계서원(초려서원) 철폐되었고, 1800년(순조 원년) 불이사를 다시 건립하였지만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다시 훼손되었다.

1600년대 말부터 중앙 정계는 봉당정치의 심화로 당쟁이 본격화되었다. 금산지역의 서원 배향인물은 초기에 향현, 당색을 초월한 유학자, 임진왜란 유공자 등이었으나

156) 김장생 문인의 근거지별 분포 (충청남도, 1999, 『충남의 서원·사우』 p53)

京畿道	忠清道	全羅道	黃海道	慶尙道	江原道	計
7	83	38	2	4	2	136

1600년대말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서인 노론계의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성곡서원의 사액시 편액의 글씨를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이 쓰고 1655년(효종 6) 종용사에 송시열과 송준길의 재기(齋記)가 걸리는 것을 비롯해 1716년 용강서원(龍江書院)의 건립에는 노론계 재지사족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용강서원의 배향인물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 시남 유계(市南 兪槩) 등이었고 봉안시에 노론계 재지사족이 총망라되어 참여하는 것이다¹⁵⁷⁾.

용강서원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18세기말에 용강서원에 추배(追配)되는 미호 김원행(溟湖 金元行)과 역천 송명흠(櫟泉 宋明欽)이 용강서원과 관계하면서부터였다. 김원행은 신임사화(辛壬士禍, 1721)로 노론 4대신이었던 조부 김창집(金昌集)이 사사(賜死)되고 김원행은 제원면 천내리에 유배되어 용강서원에 출입하면서 강론을 하였다. 송명흠도 당시의 노·소론간의 치열한 당쟁을 피해 옥천(沃川)에 살면서 용강서원에 출입하였다. 그리하여 1700년대말 미호 김원행(溟湖 金元行)과 역천 송명흠(櫟泉 宋明欽)을 용강서원(龍江書院) 추배(追配)하게 되었다.

금산 지역 일대가 노론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면 그중에 소론의 거두 윤선거(尹宣舉)와 윤증(尹拯)을 배향한 산천재서원(山泉齋書院)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서원과 관련된 각종 관찬기록에서 ‘산천재서원’이란 글자는 보이지 않으며 단지 ‘산천재’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위치도 불분명하여 남일면 음대리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열읍원우사적』에 의하면 산천재에는 미촌 윤선거(美村 尹宣舉), 명재 윤증(明齋 尹拯), 농은 윤추(農隱 尹推) 3인이 배향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천재서원의 시작은 1642년 건축된 ‘산천재(山泉齋)’라 편액된 작은 가옥이었다.

산천재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의 현장으로 조선의 정치사와 유학사에 있어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다. 즉, 가례원류의 편찬 문제가 금산 산천재에서 시작됨으로서 조선후기 금산지역의 사족도 노론과 소론으로 명확하게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가례원류 편찬으로 불거진 시비의 사연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시남 유계(兪槩, 1607~1664)는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예학과 사학에 정통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 · 윤선거(尹宣舉) · 이유태(李惟泰) 등과 더불어 충청오현(忠淸五賢)으로 불리웠던 인물이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척화를 주장하다가 화의가 성립된 후 척화죄로 임천에 유배되었다. 이 과정에서 파평윤씨 윤황(尹煌)과 시남이 함께 정배된 인연이 윤황의 아들들과의 관계로 이어졌다. 윤황의 아들들이 바로 윤순거(尹舜舉) · 윤문거(尹文舉) · 윤선거(尹宣舉)로 모두 사계, 신독재의 문인이기도 하여 동학인 시남과는 교분을 더욱 두텁게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¹⁵⁸⁾

157) 용강서원 靑衿錄 奉安時 參祭錄

158) 市南과 尹氏家와는 혼연으로도 맺어졌다. 市南의 아들 兪命興은 윤문거의 딸과 결혼하였고, 윤문거의 아들 尹搏은 송시열의 딸과 결혼하여 이들은 겹사돈이 되었다. 市南과 윤씨 일가는 학연, 지연, 혈연, 색연 등으로 엮여진 가문의 공동체와 같은 긴밀한 관계였다.(이해준, 2007, 「明齋 尹拯家와 市南 兪槩의 交遊」 『儒學研究』 15)

시남은 1633년(인조 11) 27세 때에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석호(石湖) 윤문거(尹文舉)도 이때에 급제하였고, 조익에게 함께 수학하기도 하여 평생 동안 긴밀한 친교를 갖게 되었다. 시남이 『가례집해(家禮集解)』를 시편하고 뒷날 이를 중수하면서 윤선거의 도움을 받아 예서(禮書) 편찬에 교감을 나누었고 1641년(인조 19) 시남이 금산(錦山)으로 이거하였을 때는 윤선거 형제도 금산에 은거하던 중이었다. 두 집안의 친밀한 교유가 더욱 두터워져 윤선거는 아들 명재 윤증을 시남의 문하로 보내 수학하게 하였다.

시남은 이사 온 다음 해(1642년)에 마하산 아래에 서실을 짓고, ‘산천재(山泉齋)’라 편액하였다. 산천재에서 강학하면서 호서사림과 유대가 깊어져 송시열, 송준길을 비롯하여 금산에 살고 있던 이유태, 이웃의 윤선거, 윤석호와 시남이 모두 같은 연배층으로 지기지우(知己之友)가 되었다. 특히 그 집회의 장소는 산천재(山泉齋)였고¹⁵⁹⁾ 시비의 근원이 된 『가례원류』가 두 가문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던 곳¹⁶⁰⁾도 바로 산천재였다. 시남이 벼슬길에 오르면서 산천재는 윤선거 부자의 학문터전이 되었다.¹⁶¹⁾

시남의 예학(禮學)은 사계(沙溪) 김장생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은 뒤부터 발전을 거듭하여 유배 중 「가례집해(家禮集解)」를 찬술했고, 산천재에서 강학하는 동안 『가례원류(家禮源流)』를 준비하였다. 『가례원류』는 주자의 『가례(家禮)』의 본문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경전의 내용을 뽑고 주를 붙여 그것을 ‘원(源)’이라 하고, 후대의 여러 유학자들의 예설을 조사하여 ‘류(流)’라 하여 역사상의 예설(禮說)들을 밝힌 것이다.

시남의 『가례원류』는 효종조에 완성되었지만 바로 간행되지 못하고 조정의 지원을 받아 1715년 14권 9책으로 간행되었다¹⁶²⁾. 그런데 『가례원류』의 찬자와 간행 문제가 시비의 발단이 되어 이른바 제2의 배사(背師) 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1658년(효종 9) 시남은 가례원류의 교정·보완작업을 명재 윤증에게 부탁하였는데 명재는 시남의 생전에 교정을 마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 『가례원류』는 부친인 윤선거와 공동으로 편찬한 것이며 『가례원류』의 근본이 김장생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있으므로 다시 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유계의 손자 유상기(兪相基)는 명재 말년부터 간행을 독촉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후에 노론 재상인 이이명에게 청하여 조정의 명으로 간행을 하게 되었다. 이때

159) 山泉齋에서 尤庵, 同春, 草蓴 등과 會講을 여는데, 이때 石湖, 美村 형제는 동석하여 항상 자리를 같이 하였다.

160) 市南은 산천재 생활에서 『家禮集解』의 미비함을 보완하는데 「美村類相往來助書(『市南年譜』)」하여 윤선거의 도움으로 『家禮源流』를 완성하였다.

161) 山泉齋는 1646년(인조 24) 兪榮가 무안 현감으로 부임하자 윤선거가 山泉齋 서원에 남아 유생 강론과 학문 연구를 계속하였고, 1669년(현종 10) 윤선거가 졸하자 아들인 尹拯 자신이 山泉齋 書院을 강학과 학문탐구의 본거지로 활용한다. 그리하여 山泉齋 書院은 노성에 위치한 소위 유봉정사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尹拯 講學의 場이 되었다. 산천재 서원은 숙종 12년(1686) 尹拯이 사망하자 후학들이 明齋 影像과 位牌를 봉안하고 130여 년간이나 학통을 계승하다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손된 뒤 고종 33년(1896) 그 遺墟에 후학 유생들에 의해 건립된 遺墟碑가 그 터만을 지키고 있다.(이해준, 2007, 「明齋 尹拯家와 市南 兪榮의 交遊」 『儒學研究』 15)

162) 변원중, 2006, 「가례원류의 구성과 市南의 禮生 인식」, 『市南 兪榮의 생애와 사상』(한남대 충청학연구소)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와 정호가 발문을 붙였는데, 그 글에서 명재가 스승 유계를 배반하여 교정의 유탁을 저버리고 윤선거와의 공찬이라는 등의 간사한 말을 하였다고 공격한 것이다. 『가례원류』가 과연 유계의 단독 찬술물인지, 아니면 명재의 주장과 같이 윤선거의 공찬인지는 현재로서 밝히기 어렵다. 가례원류의 편찬 과정에서 윤선거의 역할과 윤증의 참여는 분명하며 윤증의 학문연원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므로 윤선거의 참여유무를 논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명재 윤증은 스승인 송시열을 배반한 불의를 일으켰을 뿐 만 아니라 다시 스승인 유계를 배사한 불의인으로 지목되어 회니시비에 있어서 두 가지의 배사론이 겹치게 되었다. 서인계의 학맥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금산지역의 서원은 대부분 홍선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철폐되었다. 1868년(고종 5) 불이사(청풍사)가 가장 먼저 훼철되고 1871년(고종 8) 성곡서원, 용강서원, 산천재서원, 유곡사가 모두 헐리게 되었다.

6. 맺음말

조선시대 전라도 전주목에 속해있던 금산군과 진산군 두 고을은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대응은 아니었다. 금산이나 진산 모두 읍세의 규모에 의해 현에서 군으로 승격된 것이 아니라 금산은 김신이 공을 세웠기 때문이고, 진산은 진산사람 진순도가 태조 태실의 터를 조정에 알려 진산현이 주(州)로 승격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고려시대부터 토착적 성격을 갖는 토착성씨였다. 조선초의 금산과 진산의 지리지 성씨 기록은 매우 상세한 편이어서 각 지역의 주요 성씨와 그들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금산김씨나 나주진씨의 인물 제사가 언급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들의 제사방식이 고려말 호장층이 주관하였던 인격신 성격의 음사인지는 관련 사료가 좀 더 나온 후에야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초 금산지역은 조선 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성리학을 도입하고 발전시킨 유학자 율정 윤택(尹澤, 1289~1370), 윤구생 부자와 야은 길재(吉再, 1353~1419)가 우거한 곳이 바로 금산땅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말 선진 성리학을 받아들여 혼란한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고 후에 조선 사림파의 도학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윤택과 길재의 학맥을 이은 이들이 배출되어 금산 지역은 유향의 고을로 이름을 떨쳤고, 국가 전환기에 의로움을 실천하는 선비들의 본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사족의 이거가 활발히 이루어져 금산과 진산에 새로운 성씨가 자리잡게 된다. 이들의 입향과정을 추적하면 대부분 금산 지역의 토착 성씨와 혼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입향하여 세거한 성씨는 김해김씨, 박남박씨, 천안전씨, 남원양씨, 평양조씨, 온양이씨, 벽산이씨, 안동권씨, 경주이씨, 경주정씨, 해주오씨, 옥천전씨, 상산김씨, 해평길씨, 밀양박씨, 남원양씨 등이 있다. 이러한 이

거성씨는 지리지의 인물조와 생원·진사 급제자 명단인 사마방목에 그 이름을 올리며 향촌사회내에서 입지를 넓혀나갔다.

지역의 사족활동을 살피는데에서 서원과 사우의 건립과 운영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 금산 지역에도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다. 각 서원의 배향인물이 누군가에 따라 서원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데 금산 지역의 서원은 1600년대 이후 호서사림의 영향을 받아 서인 노론계 인물이 장악하고 있고 그중 소론의 영수인 윤선거와 윤증 부자를 배향한 산천재서원이 주목된다. 산천재서원은 시남 유계와 명재 윤증 간에 가례원류 편찬 문제가 얽혀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알려져있다시피 이 사건은 시남 유계의 가례원류 편찬과정에서 윤증이 자신의 아버지 윤선거의 공찬을 주장하면서 노론에 의하여 스승을 배신한 불의인으로 지목되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일을 말한다.

조선시대 한 지역의 사족동향을 살필때에 두 고을을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의 공간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진산은 금산보다 사족세가 약하여 토착 성씨도 적고 배출한 인물도 많지 않다. 서원과 사우의 건립양상 또한 마찬가지이다. 본 장에서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두 고을의 사족동향을 살피고자 하였으나, 의도와 달리 진산에 관한 연구성과와 사료가 부족하여 내용이 매우 미비한 편이다. 이점은 차차 보완해가도록 하겠다.

본 세미나는 조선시대 금산지역 유학의 흐름과 사족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것이 목적이므로 새로운 논지를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향후 다른 기회에 금산 지역의 서원 건립과 운영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